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목재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항상 남의 좋은 점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아난분별경〉

법회 안내

국락정사 (02)814-9670
신중기도 매월 1~2일(음)
인등법회 매월 7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금선사 (02)885-4165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인등기도 매월 13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심우회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1시
선재어린이법회 일 오전11시

능인삼인당 (02)833-7048
일반법회 수 · 일 오전10시

대전 영선사 (042)523-0813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거사림법회 첫째 일 오후6시

부산 금어암 (051)555-0072
초하루법회 1일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 오전10시30분

낙산사포교당 (0396)671-4167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일반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남원 실상사 (0671)34-30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불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진주 월경사 (0591)6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간신도법회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첫째 토 오후8시
합창단법회 15일 오전10시

홍천 수타사 (0366)33-6611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3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8면

사찰 환경 "오염 주의보"

행락철 앞두고 비상…도량지키기 사부대중 동참을

관람객대상 홍보 필요…통도·해인·송광사 수질악화

계간 '다보' 13호 대책 연구논문 발표

청정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산중사찰에 오염방지 비상이 걸렸다.

국·도립공원내 관광사찰과 전통사찰이 행락객이 몰려드는 봄철을 앞두고 환경보전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그간 산중사찰이 행락객들로 인한 환경오염에 몸살을 앓아 왔던 점을 감안 이제 사찰이 직접 참도량 지키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것.

4월과 5월 주말과 휴일이면 5만여 행락객이 몰리는 계룡산 동학사는 지난 해부터 오염으로부터의 도량지키기에 적극성을 보여 온 대표적 사찰이다. 동학사측은 경내 계곡에 출입금지 팻말을 설치하고 스님들이 직접 출입과 취사행위 고성방가등을 막고 있다.

또 갑찬 직지사는 경내 청소원 2명을 고용, 매일 관람객이 버리고간 오물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된 오물은 김천시청이 이를에 한번씩 차량으로 수집, 하치장으로 옮기고 있다. 수덕사의 경우는 매달 군청과 면사무소와 사찰이 경내에서 환경보호, 청정도량 가꾸기 캠페인을 벌여 깨끗한 도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같은 환경보호 운동은 전국의 사찰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행락객의 환경보호에 대한 무관심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게 사찰측의 얘기다.

반면 사찰순례를 다니는 각 신행단체는 사찰환경보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조계사 대승불자회는 매월 한차례씩 사찰순례 구도법회를 갖고 있다. 사찰 순례시 미리 준비해 간 쓰레기 봉투에 오물을 수거해 소각함으로써 사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산중 사찰의 환경오염 방지는 행락객들을 얼마나 잘 지도하는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 불교환경 연구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이 직접 경내와 주변 관광지역에 안내판과 인력을 배치 오물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

환경보호 실천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각종은 '심청정 국토청정' 운동의 폭을 연차적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에서도 '환경보존을 위한 불자 10대 실천지침' 등을 내놓아 청정환경 가꾸기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찰환경의 오염실태는 심각한 상태다. 최근 발간된 계간 (다보) 13호에 기고된 '사찰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이병인, 이영경)'에 따르면 용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주요 사찰은 먹는 물까지 수질악화가 기준치를 넘고 있으며 소음공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

이 보고서는 행락객뿐 아니라 사찰 자체의 정화조, 하수관리에도 허점이 있어 청정도량의 오염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자연림 조성, 간이정화시설 설치, 쓰레기통 철거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 국보 제284호로 지정된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62, 170, 463.

동학사서 비구니 중진스님 연수

다음달 17~19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주관하는 비구니 중진스님 연수회가 오는 4월 17일에서 19일까지 2박3일간 동학사에서 개최된다.

승려재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비구니 중진스님 연수회는 △종단현황과 포교의 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지도자로서의 자기변화 등과 △계율 △사회복지 등의 강의와 토론이 있게 된다.

초조본 반야심경 국보 284호 지정

불교문화사 · 서지학 연구 중요자료

고려 정종 12년(1046)에 간행 된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제162, 170, 463」이 국보 제284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 162와 권 170 권 463을 국보 284호로, 조선 세종4년(1422)에 간행된 「몽감속편」을 국보 제283호로 지정하고 조선초 문인 손소선생과 이색선생의 영정을 각각 보물 1216호와 1215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된 「초조본 대반야…」의 권 162는 반야경의 교리를 닦아서 얻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비교한 내용이고 권 170은 보살이 다른 사람의 공덕이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회향한다는 내용이며 권 463은 보살이 부처가 되는 지혜를 깨우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권의 초조 대장경은 해인사 대장경판본에 비해 25행 14자의 판식과 간기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불련 '환경모임' 발족

쓰레기 줄이기 등 전개

나무심기 운동, 장바구니들기 운동, 사찰내 환경운동,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 불교적 관점에서 환경문제 접근 등을 주요 실천운동으로 한 불교환경모임이 발족됐다.

경불련(회장 월주)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불교지원정사연합회 강당에서 '환경모임'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선우도량 "종단 개혁 지속"결의

제 2기출범…지난 16~17일 수련결사

지난해 조계종 개혁 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선우도량이 지속적인 개혁에의 의지를 천명하며 제2기 출범의 물을 올렸다.

선우도량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제8회 수련결사'를 개최하고 승가교육개혁, 불교사상과 수행론 정립, 깨달음의 공덕을 사회와 대중의 삶에 회향한다는 제2기 출범의 결의를 다졌다.

법상 한기스님의 발제로 시작해 논경, 대표 토론자 3인의 토론으로 이어진 이번 수련결사에서 선우도량은 제1기(90년-94년)성과에 대해 "회업학립,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 발족으로 역량있는 승가 수행자를 배출하는 한편, 역경과 교재 편찬의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종단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우도량은 개혁을 계속 추진할 대안세력 창출과 시대에 맞는 불교사상체계 정립을 통한 사부대중의 요구에 맞는 수행관 · 수행방법 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개혁회의 평가와 종단의 방향모색에 대해 선우도량은 "개혁회의가 개방적이면서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종도들의 자부와 열기와 개혁의지를 승화시키지 못한 점과 승가풍토를 법화시킬 개혁조치들을 단행하지 못했던 것은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우도량은 지난해 조계종 개혁불사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자체활동의 장해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 지속적인 개혁활동은 물론 내실있는 자체행사를 통한 위상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대중과 호흡하는 전국순회법회 15면

목어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최근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미국의 UC 리버사이드대 심리학과 프리드먼 교수진은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美심리학 저널에 발표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허영심없는 성격의 사람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이용하는 성격보다 조기사망할 확률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1921년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먼교수가 1천5백명의 우수한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친 인간지능 및 사회생활 변화추이를 살핀 '터먼 평생주기'를 바탕으로 해 더욱 신뢰도가 높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보도가 있다. 김종수씨는 '존대말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어느 일간지에 발표했다. 1백세 이상된 장수노인들은 반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대말은 건강을 이롭게 하는 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건강치 못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오래살려고 집착하면(壽者相) 보살이 아니라고 경계하셨다. 부처님은 더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대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려는 불자를 善男子 善女人이라 부르셨다. 무상 정등정각을 이루려는 선남자 선여인. 즉 보살은 착할수 밖에 없다. 또 오래 살려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일체 집착을 여읜 선남자 선여인은 프리드먼교수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당연히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한국가스공사를 아십니까?

한국가스공사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중부권 가정에 천연가스 공급! 연간 매출액 1조 4천억 원! 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가꾸어온 한국가스공사의 어엿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청정연료의 시대를 연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10개 도시가스사를 통해 수도권 및 대전권 일원에 천연가스를 공급한데 이어 2000년, 전국 600여만 가정에 보다 깨끗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한국가스공사는 보다 많은 국민이 천연가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공기업인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한 발자욱이라도 국민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도 산간오지를 헤치며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사 설

생활불교 자리매김 계기로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오신 뜻을 되새기면서 그 법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날이다.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에 집착하여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큰 빛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캄캄한 세상에서 닥치는대로 살아갔을 것이다.

불기 2539년을 맞아 봉축위원회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 불자들의 불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미치도록 하려는 두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살리는 의미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행사는 경축 그 자체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야말로 불교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사는 생활불교의 성격을 강화하고 대중 속에 불심을 확산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집착과 성냄과 탐욕에 물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참회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불자이고 싶어하나 아직도 깨달음이 철저하지 못한 많은 대중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가르침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불교의 뜻은 기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젖기 쉬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은 깨침의 법어를 얻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존재의 허물을 벗고 삶의 덧없음을 바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큰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수행자들 스스로가 대중의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은 반복되지만 시대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포교는 그만큼 진취적인 성격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다. 대중이 갈구하는 깨끗한 환경과 생태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과 문화, 외롭고 어려운 노인층 등은 불교계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인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의의있는 일이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일이나, 우리나라 사람과 남의 나라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불자의 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가 우리나라를 위한 종교가 됨으로써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부처님 오신 날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우리 불자들이 나라를 위한 진실한 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도움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사를 온 국민과 더불어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는 이날만의 일과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는 대중포교의 중요성과 생활불교의 자리매김을 일년 내내 연속되도록 함으로써 부처님이 대중의 숨결 속에 계시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열린마당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의례·형식 지양…국민행사로
보살행 실천 주안점두고 진행

범 하 스님



이번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불교의 대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종단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청정한 수행과 승풍 진작을 통한 대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하여 이 사회를 향도하는 승가 위상을 강화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나와 이웃, 사회, 민족, 세계, 자연과 하나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온겨레의 비원을 담아 민족이 하나되는 메시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각계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 동사섭하는 요익중생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개혁종단이 첫 출범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21세기의 문명을 선도하는 변화된 불교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봉축 행사는 전 불자들이 합심전력하여 치뤄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무명에 싸인 중생들의 삶을 깨달음의 길로 제도하여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받들어 나가는데 원력을 심고, 보살행으로써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부처님 오신날'이 될 수 있도록 정진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

〈조계종 총무부장〉

이 준 교수



교계화합통해 통일원년 발원
불교 연극·음악회등 확대해야

분단 50년에 맞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다른 해에 비해 의미가 깊은 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불교텔레비전방송의 탄생으로 봉축의 열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오신 날이 민족적 명절로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봉축행사는 지나치게 불교인 위주로 진행되었다. 일반인에게도 잊혀지지 않도록 민족명절인 사월초파일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컴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겠다. 교계 신문, 방송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있는 다양한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 일반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다.

또한 불교적 소재를 가진 연극, 영화, 음악회가 지역마다 마련되기를 바란다. 사찰위주로 지역민을 위한 대 사회 자비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야 하겠다. 특히 금년은 불교계가 선언한 통일 원년으로서 북한과 해외동포들을 위한 마음의 등을 달아야 하겠다. 부처님은 이렇게 오셨으면 한다.

아울러 봉축위원회는 각종 정보를 모아 널리 알리고 불교계의 화합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금년 봉축 제등행렬은 각 종단이 여법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건국대 공업화학〉

시 론

생명 앗아가는 사이비 종교

마술적 구원 빌미로 현혹…사회불안도 원인



최 훈 동
〈백산 신경정신과 원장〉

몇년전 종말론과 휴거로 떠들썩하고 사이비 종교 전문가가 살해당하여 충격을 주더니 이번에는 실종된 교인들이 사이비 교단에 의해 살해 암매장된 것이 사실로 판명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종교나 이단종파가 2백여개에 달한다고 하니 한국인은 종교적 심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만하다.

종교적 심성은 인간정신의 가장 원초적 본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불완전하고 무력하며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신앙은 그 속성에 있어서 유아적 상태에 머물고자 한다. 갓 태어난 아기가 거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게 된다. 완벽한 충족과 안락이 있었던 어머니의 뱃속처럼 모든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절대적 안식처를 무의식적으로 동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사이비 종교도 그런 점에서 종교적 현상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점에서 기성종교와 다르지 않다. 다만 건강하고 성숙한 종교가 아니라 병들고 미숙한 종교일 뿐이다.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는 데는 인간내면의 문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수록 사회가 불안하거나 시대가 격변기에 놓일수록 사이비 종교나 신흥종교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한 어린 시절과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가정주부로부터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 등, 사회에서 실패와 죄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기성종교에 실망한 종교인들도 드물지 않다.

외부와 격리철저 폐쇄집단

사이비 종교는 이와같이 인간 내면의 종교적 성향을 인으로 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緣)으로 하여 버섯처럼 퍼져 나가게 된다. 사이비 종교는 몇가지 점에서 건강한 종교와 구별된다.

최근에 물의를 빚은 사이비 종교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대체로 집단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세계와 격리된 생활을 하며 비밀이 많고 은폐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좀처럼 그들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고 한번 입교하면 빠져나올 자유가 거의 없다.

둘째, 의존적이고 비주체적이다. 자신의 주체적인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교주나 지도부의 교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며 온갖 재산 다 바쳐서 교주에게 칭찬 받고 인정받고자 한다.

기성종교 제 역할 다해야

셋째,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다. 교세확장과 구원사업의 명분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행동에 비판을 가하거나 교단을 이탈하고자 할 때는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살인 등의 반인간적 행동도 불사한다.

이와같이 유치하고 끔찍한 사이비 종교는 사실은 기성 종교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종교의 부정적 기능은 인간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차단하고 타력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유아적 상태로 고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사이비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기성종교가 인간정신을 보다 성숙한 상태로 이끌어 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을 통한 신비한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인이 있는 한, 모태시절의 완벽한 구원을 항상 희구하고 있는 유아적 환상과 맞아 떨어져 병적인 신앙을 유도하게 된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의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에 의지해야 된다. 붓다의 가르침이 더없이 존귀한 것은 부처님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하신 점이다.

불교 출현 당시의 인도 사회도 신중심주의에 물들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모든 종교도 신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오직 불교의 구원만이 인간 중심에 근거하고 있다. 진정한 구원은 유아적 의존상태를 성숙한 자립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다. 신비한 치유능력이나 신통한 초능력을 강조할수록 사이비 종교와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구원의 첫걸음은 외부적인 것(물질·권력·명예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진정한 고통의 해결은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이다. 참된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얻는 것이며, 인욕과 정진의 힘든 노력 없는 마술적인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만의 안락과 행복을 기원하는 이기적 구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널리 베풀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대립에서 화해로, 증오를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바른 신앙의 길이며 신비한 구원을 약속하는 사이비 종교의 손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나무 석가모니불.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한마음으로…

◇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주요 봉축행사 계획

내용	행 사 명	장 소	일 시
법요식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7 10시
	봉축 기원 대법회	여의도	4/29 18~19시
	제등행렬	여의도 조계사	4/29 19:30분
경축행사	시청앞 평화의 탑 점화식	시청앞 광장	4/27 19:30분
	원각사지 탑돌이	탑골공원	5/3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동대 중강당	5/14 14시
	청소년 음악회	파리공원	5/13 19시
	어린이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5/14 10시

내용	행 사 명	장 소	일 시
경축행사	서울 인형제(국제인형극제)	목동청소년회관	5/26~28 14시·16시
	지하철역 봉축등 밝히기	지하철 각역구내	미정
	불교 웅변 대회	조계사 대웅전	4/30 14시
	봉축 꽃꽂이전	미정	미정
	아동극 공연	목동청소년회관	4/21~5/7(1일 3회)
	시 낭송회	조계사문화회관	4/22 17시
	불교미술세미나(불교미술 재조명)	프레스센타	4/25 14시
	불교학술세미나(21C를 대비한…)	승가대학 대강당	미정
	'부처님 오신 날'학술 세미나	동국대학교	미정

내용	행 사 명	장 소	일 시
경축행사	만등 만화 공양법회	MBC 문화체육관	4/2 15시
	연꽃 노래 잔치	동대 중강당	예선 4/2 13시 본선 4/30 13시
자비의 손길	일선장병 위문	전후방부대	4.15~5/20(주간)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급	청소년회관	4/29 18~19시
	장애인 자선큰잔치	조 계 사	4/22 16시
	노인재소자 위문 잔치	미 정	미정
	외국인 노동자 법회	조 계 사	5/5
	불우이웃 돕기	미 정	4/15~5/20(주간)



불교성지 순례

파 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출 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 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다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협찬: 대한항공

스리랑카 6일
· 출 발 : 3월 24일,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 출 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네팔·태국 10일
· 출 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신행수첩

수행의 길 남도 3사로
신행연 첫 문화기행

산뜻한 봄날! 우리의 문화속에 깃든 불교의 참뜻을 살피고 살아있는 정신을 깨우쳐 보고자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에서는 제1회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25일(토)~26일(일)까지 1박2일에 걸쳐 반도의 최남단 동백꽃이 붉게 물든 해남대둔사와 미황사, 그리고 강진 무위사를 답사한다.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불교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 및 불자들은 21일(화) 오후1시 양재역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힘차게 출발해 보자. (02)587-6613



◇대둔사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두륜산 줄기의 '너무내'라는 곳에 자리해 있다. 봄을 맞아 남도사찰을 찾는 참여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꿈의 세계·동화의 나라
불교문화센타 구연동화

아이들의 조잘됨은 봄의 아지랭이를 연상시킨다. 어설프게 엮어지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노란 개나리의 파릇파릇한 생기를 담은 아이들은 이쁜 꿈과 함께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불교문화센타 구연동화교실(강사 박경주)은 그런 꿈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와 풍부한 감정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유아·국교생 2개반으로 나눠 매주 화·금요일 마련, 동화의 나라로 꾸민다.

황금빛 사슴이야기, 전나무 가시나무, 욕심쟁이 사자등의 동화를 자연스런 몸동작에 실어 재미있고 애교스럽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이 시대를 꾸며가는 최고의 언어술사이자, 최고의 예술가가 아닐까?

봄의 향취를 품은.

(02)-703-0108

봄빛따라 옛 가람따라
광주교육원 유적 답사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끝.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풀빛 봄내음을 안고 온누리 구석구석 계절의 법음을 전한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스님)은 오는 26일 오전 8시 부처님 미소를 따라 '제11차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불교와 도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도전리 마애불상군을 지나면 대가람의 위풍을 드러낸 단속사지를 만난다. 대원사와 대원사에 들러 석탑 등을 둘러보며 옛 선조들의 불심도 느낄 수 있다.

누구든 자신속의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참가할 수 있다. 출발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정문앞 광장. (062)228-9098

'세상은 空' 반야를 찾아
정토포교원 심경 강좌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법회의식에서 독송되고 있으며,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경이 바로 공(空)사상을 설한 〈반야심경〉이다. 하지만 가장 친근한 이 경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이 반야심경을 알기쉽게 풀이해 창조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반야심경 대강좌'를 마련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철저하게 터득함으로써 반야(般若:지혜)를 얻어, 결국에는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을 통해 반야의 인격을 나타내고, 불생불멸을 통해 반야의 실상을 천명하고 부처님과 보살을 통해 반야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불교교육원장 법륜스님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정토포교원에서 3월 22일~5월31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시, 오후 7시30분~9시30분 서초정토법당에서 3월21일~5월9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02)737-0853

용성스님 가르침 기려
대각사서 열반56주 추모…설법집 봉정 법공양



◇용성스님

구한말 선·교·율(禪敎律)에 정통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으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민정신 계도에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이를 꼽으라면 우선 용성스님을 들 수 있다.

3·1독립운동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이었던 용성스님은 14세에 출가, 선(禪) 수행과 교학(敎學)을 남김없이 섭렵하고 선교겸수(禪敎兼修)의 길을 주창했다.

오는 24일로 용성스님 열반 55주기를 맞아 대각사(주지 도문)는 용성스님의 유업과 뜻을 기리며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용성대종사 55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용성스님의 설법을 집대성한 〈불타조사원류 불교5대수행합본〉(대각 제178호)와 〈천수천안경장아함선생경 합본〉(대각 제178호)이 영정에 봉정되며 이날 참석한 불자들에게 무료 보급된다.

용성스님이 작곡한 법향이 불교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지는 속에 독립운동과 불교중흥을 위해 육신을 회향한 용성스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765-0972

올바로 배우는 불법
불교교화원 교양대 개설

불자들의 기본적인 소양함양과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의 장이 신설돼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년 5백여회 이상의 각종 법회 및 언론매체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적극 펼치고 있는 (사)한국불교교화원은 부설로 불교교양대학(학장 성륜)을 개설한다.

4월 1일 개강될 불교교양대학은 초심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기초교리에서부터 비교종교학, 아함경등의 전문교리를 종합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개월과정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불자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 뜻있는 교육불사인 만큼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964-8044

절망의 삶에 희망과 자비를…
남편병사 두자녀 불구에 자신도 눈멀어
경남하동 조막순씨

가난에 쫓겨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눈까지 멀어 끝내 몸져 누운채 도움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번지 중평3구에 살고 있는 조막순씨.

남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 투병중에 세상을 떠났고, 용석과 진옥 두 남매는 자라면서 근육이완 마비 증세로 모두 지체장애자가 되었다.

용석군과 진옥양은 아직 한번도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고엽제 후유증이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다.

불구가 된 두 자녀와 눈이먼 조막순씨는 새삶을 열어줄 애틋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심장병으로 생사를 헤메던 임태현군(본지 15호)은 각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다.

(0591)751-3384

농협 803-01-344384(김기원)

월간 '맑고 향기…' 3월 창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는 최근 소책자 '맑고 향기롭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3월호로 첫호를 선보인 이 소책자에는 산골오두막에서 보내온 법정스님의 수필을 비롯해 꽃이야기, 책이야기, 동화, 알뜰생활 메모 등이 실려있다. 또 회원들의 편지글, 운동본부 소식, 지역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산·경남모임을 소개했다. 한일그룹의 지원으로 매월 32쪽 분량, 1만부를 제작하는 '맑고 향기롭게' 소책자는 부산·경남 청주 춘천등 지역모임 회원과 전국 주요 불교서점에도 진열돼 무료로 배포된다.



◇이계진씨



◇김영동씨



◇김광석씨



◇노영심씨

새봄 이웃과 나누는 사랑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27일 대전서 음악회

작은 냇물이 모이고 또 모이면 넓은 바다를 이루어 낸다.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생명이 움트는 새봄을 맞아 '법정스님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오는 27일 오후7시 대전 우송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대전모임 결성 및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된다. 부산,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대전 음악회는 충청지역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계진씨 사회로 진행될 이번 음악회는 국악가 김영동씨의 우리가락 '소금연주'를 필두로, 노영심씨가 '피아노 연주'로 맑음의 소리를 들려준다. 또한 가수 김광석씨가 노래의 향연을 펼치며 자매결연을 맺은 이웃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는 법정스님이 '연꽃처럼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요한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042)633-1141

부처님의 지구사랑
전 재 성 ⑨

원시림 파괴

부처님께서 알라비마을에 계실 때에 수행승들이 집을 새로 수리하면서, 한 수행승이 나무를 벌목했다. 이 때에 나무에 사는 수신(樹神)이 "우리의 터전을 벌목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그 수행승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수신의 아들의 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그래서 그 수신은 "이 스님의 목숨을 빼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으나 곧 뉘우치고 부처님을 찾아 뵙기로 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듣고 수행승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을 수신에게 칭찬한 뒤에 "석가의 아들이 나무를 벌채하거나 벌목시킨다면 사문 석가의 아들은 한 목숨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비난이 있었음을 알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대중들에게 확인한 뒤에 "초목을 벌채하면 참회죄(波逸提)에 해당한다"라는 계율을 제정했다.

이 계율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절명의 법이 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처님의 선견지명의 혜안을 드러내는 탁월한 환경윤리이다. 여기서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나무의 개념은 수신(樹神)으로 등장한다. 수신이 나무를 자른 수행승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연의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파괴된 원시림의 수신들은 지구를 비롯하면서 "인류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면 어떨까"라고 궁리하고 있다.

초목은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초목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적도부근의 원시림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산업화이후 보다 나은 집, 보다 좋은 가구, 보다 신속한 신문, 잡지, 책, 보다 값싼 쇠고기, 햄버거를 위해 소수의 다국적 기업을 매개로 가난한 나라의 귀중한 열대림을 마구 벌채해 왔다.

지금 전세계에는 1989년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에 전지구의 16%가 원시림이었으나 이제 고작 6%로 전락하여 72%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전보다 훨씬 좁아진 허파의 지구를 사는 우리도 옛날보다 더욱 작은 허파, 좁은 가슴을 지니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당 축구장 크기의 원시림이 채벌되고 있어 그 속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지구상의 모든 원시림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원시림의 파괴는 지구상에 예측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자연의 보복을 초래하고 있다. 열대 원시림은 어마어마한 수분과 연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의 기후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최근 기후의 이상현상인 엘리뇨현상도 이런 열대림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원시림이 파괴되면 대량의 수분이 유출되어 땅은 황폐화되고 강수량은 감소하고 지하수면은 내려가서 농산물의 생산량도 격감되고 토양은 사막화된다.

또한 원시림이 불태워지면서 대량의 탄화물이 산소를 소모하고 많은 탄산가스를 방출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녹색식물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공기조성의 변화를 가속화시켜 지구를 온난화한다. 따라서 빙산은 용해되고 바다수면을 상승시켜 경작지 면적을 감소시킨다.

뿐만아니라 열대림의 파괴는 최근 20~30년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3백만내지 1천만 종류의 생류가운데 50만대지 60만종류의 포유류, 새들, 곤충및 식물의 아름다운 기적을 영원히 우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매초당 축구장 만한 산림 사라져
생물멸종·지구온난화등 기상이변 초래



◇삼림벌채로인한 원시림의 파괴는 생태계의 변화와 토양의 사막화 맑은 공기의 감소등 자연의 보복을 낳게 한다.

생활속의 불교 ㉑

협찬:(주)삼민산업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굳을수록 '내가 없어진다, 없다'는 데 대한 불안·공포는 커진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된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에 내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공포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 권력은 잡고 보는 것, 자리는 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유에 집착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이 그렇다. 그것을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개중에는 '나', '나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아니면 적어도 대범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사에 걸림이 적고 한결 자유스러워 보인다는 점이다.

집착은 구속이다. 애착은 사슬이다.

'나', '나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존재와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꽁꽁 갇힌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팔아서 대신 '나의 모습, 나의 명예·권위·재산' 따위를 사들이고 있는 셈이다.



지혜란 '본래부터 나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란 물질과 육식은 필경 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일체의 형상계에선 고정되게 내세울 존재가 없다. 고로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셨다. 누구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걸림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는 반문에 있다. 살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고, 사랑이 떠나면 슬프고, 부를 잃으면 괴로운 것이 삶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이 설파하신 참도리는 아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라고 하셨다.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불자라면 먼저 그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보라. 자만심, 애착, 소유욕으로 꽉 찬 마음을 비워보라. 그리고 대신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보라.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텅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다.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리면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하나.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둘.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셋.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냉동용 베파베리아 ·건축용 베파베리아 ·축사용 베파베리아
·난연용 베파베리아 ·방수용 포장재 ·레저용 MAT

삼민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 나-109호
·전화:0345-498-5533
·팩스:0345-498-8998

교 차 로

세계모범마을 행사 참석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세계모범마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중국 연변 방글라데시 등 낙후지역 모범마을의 자활을 모색했다.

시 도단위 단합법회 참석



전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14일 제주 금강사에서 열린 각 시·도 단위 단합법회에 참석 제주지역 포교활성화를 모색했다.

진각대학 졸·입학식 참석



최지광 진각종 통리원장은 지난 14일 총인원 소강당에서 거행된 진각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석, 법문했다.

사리탑 조사차 출국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사리탑 조사차 출국했다.

전남대에서 '국제화…' 강연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민족사랑학생연합 초청으로 지난 16일 전남대학교에서 각 대학 청년학생에게 '국제화 시대에 민족과 불교가 해야할 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동방불교대 부학장 피선



정대은스님(태고종 전교무부장)은 지난 3일 인사개편에 따라 동방불교대학 부학장에 임명됐다.

'북한 불교전망' 주제 발표



법타스님(평불협 부회장)은 오는 30일 오후2시~5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광복 50주년 즈음한 종교인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불교 교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기조연설은 나학진교수가 하며, 법타스님과 천주교 김몽은 신부등 6개 종교 대표자가 참여 각 종단의 통일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인천 산곡동 포교원 개설



도홍스님(보은정사 주지)은 지난 19일 인천 북구 산곡동(부평 화랑농장 고등기술학교 앞)에 포교원을 마련하고 개원했다. 스님은 이날 "바른불교, 실천불교에 앞장 설 터"라고 밝혔다. (031)512-7578

문화예술대학원 개원식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오는 21일(화) 오후 6시 30분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학교법인 관계자 및 문화예술계 인사, 동창회 임원 등 내외귀빈을 초청 문화예술대학원 개원식을 갖는다.

한국고대사 강좌열어



김 종 규 관 장(삼성출판박물관·삼성출판사 회장)은 3월16일부터 5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2차 한국고대사 강좌를 연다. 주제는 '한국고대사 - 민족사의 뿌리, 고조선'이며 단국대 윤내현 박물관장이 강의한다.

LA서 불교사상 강연



권기종(사진 위), 박동기교수(동국대)는 오는 24일 오후7시(현지 시간) L·A 래디슨윌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될 미주 한국불교방송 개국 1주년기념, 행사에서 불교사상에 대해 강연한다.

복지법인설립 위한 회의

이규범이사장(재단법인 태고원)은 불교 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회의를 지난 15일 부산에서 갖고 재산을 출연할 의사를 표명해온 불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정각원서 '깨달음' 주제 설법



녹원스님(동국대 이사장, 직지사 주지)은 지난 1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정기법회에서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설법했다.

태고원 기획실장에 임명



홍성복씨(전 동방대 교학처장)는 지난 3일 인사개편에 따라 법인 행정원 운영부장과 태고원 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종립 해동고교장 취임



양원식(사진 위), 김명배씨(해동고 교감)는지난 3일 종립학교 해동고등학교 교장, 교감으로 취임했다.



신임 양교장과 김교감은 해동고등학교에 각각 30년, 25년간 근속해 왔다.

영남 일보서 사사편찬



문형렬씨(작가)불교방송국 기획실의 실에서 근무하다 전업작가를 선언했던 문씨는 최근 영남일보에 입사, 사사 편찬 작업을 맡았다.

동국대에 장학금 1백만원

이경숙씨(경주 현곡면 거주)는 지난달 15일 동대발전과 불우한 학생을 위해 1백만원의 장학금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전달했다.

한가람 유통회사 설립 이 주 영 씨



"각 지방과 사찰에서 나오는 특산품과 농협, 생산자 단체등과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의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한가람 유통주식회사 대표 이주영씨.

사찰·불자가정에 신선한 우리 농산물 배달

농산물시장 개방을 맞아 우리 농촌을 살리고 먹거리 문화 개선을 통한 불교적 회향을 이루고자 '한가람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오는 4월1일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 마련된 대리점에서 첫 출발을 한다.

"불자가정에 수입농산물 대신 우리농산물을 공급해 불교의 자비정신과 중생구제의 이념을 실천할 것"이라는 그는 냉동차 2대를 구비해 놓고 야채류, 나물류, 과일류, 주곡류를 비롯 참기름과 제수용품 전통한과등을 불자가정에 배달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영씨는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직판장 주말농장건립 등 유통을 통한 불교포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계획이다.

(02)720-5121

게시판

▲토요공개강좌=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3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일반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토요역사·문화공개강좌를 연다. 강좌내용은 고고학, 미술사, 민속사, 한국의 건축등 강의 및 고궁답사로 짜여져 있다. (02)739-3872

▲한국불교학 전문강좌=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한문불전강좌와 함께 범어 빨리어 티벳어 등의 불교원전연구과정을 추가로 개설, 연구생들을 모집한다. (02)765-9602~3

▲수강생 모집=부산 능인선원(주지 법능스님)은 능인불교학교 제1기 기초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수, 금요일 주간반 오전10시30분, 야간반 오후 7시30분. (051)623-9260

▲모니터요원 모집=한국방송감청관리소(대표 곽영석)에서는 라디오와 TV매체를 총망라한 지역별 매체별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02)733-3221

▲BBS '거룩한 만남' 2백회 기념행사=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2백회 기념행사 '작은 사랑이 세상을 깨웁니다'가 오는 26일 오후 3시에서 4시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무료 이·미용 실시=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영태)은 오는 23일 오전 11시~4시까지 복지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무료 컷트·파마를 실시한다. (051)893-5034

▲자비불교학당 개설=자비의 집은 자비불교학당(학장 법광스님)을 개설하고 바른불교를 찾고자 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제1기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02)945-4200

▲신라문화원 개원 2돌 큰잔치=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라벌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신라문화원 개원 2주년 기념 한마당 큰잔치 '큰스님 서서화전'을 개최한다. (0561)771-1950

▲영화 '에스콘디도' 시사회=불교방송 영화음악실은 오는 29일(수) 오후7시30분 시네하우스 아마데우스홀에서 영화 '에스콘디도' 시사회를 개최한다.

재소자에 희망주는 젊은 빛

89년 경비교도 대원 60여명 모여

탐 방 서울구치소 구도회

사람들의 몽념에 의해 '구치소'는 어두운 곳, 소외된 곳 그리고 아픔이 스며있는 곳으로 인식돼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바로 이곳, 사회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있는 교도소 재소자들과 마주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원들로 구성된 60여명의 구도회(회장 한상철 수교) 회원들이 바로 그들.

지난 89년 10월, 보람있는 군생활과 신심높은 불자신도대원들이 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치고 실천하고자 창립된 제1902 경비교도대 구도회(求道會)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구치소에 밝은 햇살을 비춰주면서 재소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구도회는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 외에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직원 및 재소자 합동수계법회와 매년 2차례의 성지순례를 비롯, 조경수 가꾸기등의 봉사작업을 통해 '진흙속에 피는 연꽃'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92년도 7월10일, 교화현장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상을 모시는 봉안법회와 93년 6월7일의 지장보살상 봉안법회는 한때의 잘못으로 마음고생을 하는 많은 재소자와 이들을 교정(矯正)·교화하는 직원, 경비대원들의 불심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두운 곳이라고 무조건 외면하고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따뜻한 사랑이 요구된다"고 말하는 한상철 수교는 주·야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회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신행활동을 하는 한편, 〈구도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면서 신심을 다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고양과 경전 해독에 온 정성을 기울여 온 지도법사 김기옥 교도관은 "불자들도 신앙인으로서 재소자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들이 아름다운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책자 하나 단추하나를 보시해주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지난해 5월 교정대상을 수상한 지도법사 김기옥교도관과 함께 한 구도회 회원들.(가운데 꽃다발든 이가 김씨)

내일을 여는 불자

선재 이벤트 운영 이 성 훈 씨

"선지식 만나듯 포교사업 펼터"

이벤트 행사 '척척'…레크리에이션 1급 지도자

"이제 막 아마추어에서 프로에 뛰어든 기분입니다. 프로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겁니다" 프로화된 포교를 주장하며 불교포교를 위한 이벤트사업에 뛰어든 선재이벤트 이성훈실장(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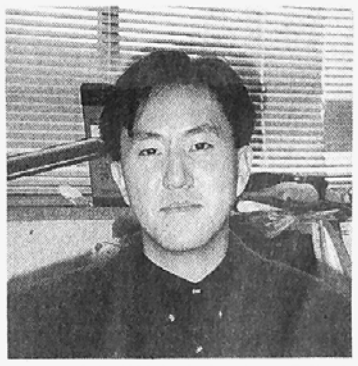
대학 1학년때부터 레크리에이션 공부를 시작,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지도자로 활약하던 중 대학3학년 무렵부터 역촌동 삼보사에서 어린이법회교사로 청소년부 간사로 청년회 회장으로 포교에 첫발을 디뎠다. 또 우리나라에 40명도 채안되는 세계협회공인 한국여가 레크리에이션협회 1급 지도자중의 한사람이기도 한 그는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연수부장까지 역임했다.

지금도 선재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목동법안정사 어린이법회 주임간사와 청소년 간사장의 소임을 맡으며 일주일 내내 포교를 위해 쉬는 날이 없는 그는 포교경력 9년의 알짜배기 프로다.

이런 다양하고도 성실한 신행포교활동을 해온 그였기에 선재이벤트라는 모임에 가까운 포교사업도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나듯 선재마을 이지선법사와의 만남으로 선뜻 시작할 수가 있었다.

"힘들거라는 각오는 이미 돼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개척자의 자세로 불교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선재이벤트를 꾸려나갈 비장한 그의 각오다. 이벤트라는 다소 낯설고 생소한 영역을 통해 불교포교의 새 장을 열겠다는 열의로 가득한 그의 눈빛이 사못 진지하다.

"레크리에이션이 단순한 진행이라면 이벤트는 기획에서부터 준비 실행까지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며 이벤트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는 "불교포교를 위한 적절한 방편을 만들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일 문을 연 이후 첫 이벤트사업으로 '어린이 눈썰매타기'를 진행하면서 적잖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 그는 그러나 그런 모든 난관들을 신선재이벤트에서 자신이 펼쳐보이고자 하는 프로화된 포교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일 문을 연 이후 첫 이벤트사업으로 '어린이 눈썰매타기'를 진행하면서 적잖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 그는 그러나 그런 모든 난관들을 신심으로 극복할 것임을 다짐하기도.

요즘 그의 머리속은 앞으로 진행할 다양하고 참신한 이벤트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서울시내 청소년법회 대항 체육대회·온가족이 함께하는 사찰단위 초파일 전야축제·불교유치원 연합행사·불자가족캠프 등등.

이같은 사업의 전개로 이벤트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넓히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등 신세대불자들을 바른 불교문화로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성훈 실장, 그가 선재이벤트를 통해 회향코자 하는 최종의 목표다.

〈이은자 기자〉

반/야/심/경/사/경/책/무/료/보/급/안/내



반야심경사경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사경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필요한 권 수와 주소, 전호번호를 적어서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결사보현도량 사경본부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1178-1 우 : 456-890
전화 : (03347) 676-8700 FAX : (03347) 676-8704

가족 주말 농장 안내

불자가족들께 10평 규모의 농토를 빌려드려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심어주며 농작물을 가꾸는 체험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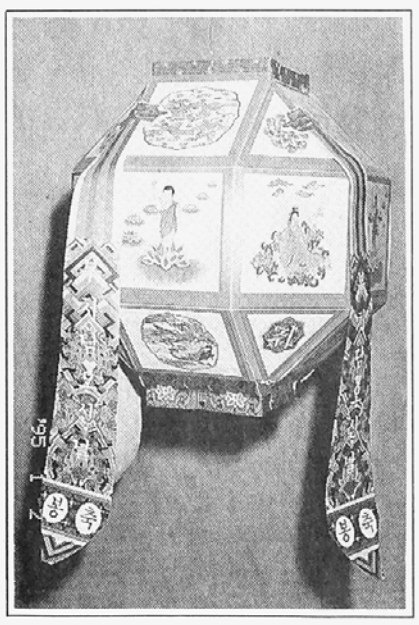
농장위치 : 중부 고속도로 죽산(일죽)톨게이트에서 15분 거리
임대기간 : 95년 3월 ~ 12월까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시밀리
비 용 : 5만원(거름 구입과 약간의 공동 인건비)
주요농기 : 호미(각자 준비) - 삽, 괭이는 공동 사용
파종일시 : 3월 26일(일), 4월 2일, 9일(일)

임대분양 순번은 팩시밀리및 우편 접수 순서로 하며,
가족이나 그룹에게만 분양하고 개인은 사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결사보현도량 禪農園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용설리 1178-1 우 : 456-890
전화 : (03347) 676-8700 FAX : (03347) 676-8704
도솔산도피안사

홍 법 팔 각 등

풀칠이 필요 없는 팔각등



■ 조립이 편리한 등
—풀칠 없이 2분 완성
■ 전통의 단청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행사 수일 전부터 봉축 분위기 장엄
—특수 이중합지 방식
—이슬 방지 처리
■ 운반 및 보관 편리
—재사용 가능
■ 경제적인 가격
—650원 (1개당)
■ 봉축행사용품 일체
—만불기, 다라니, 연잎, 초 리본, 등표

※ 전국 어디서나 주문시 신속공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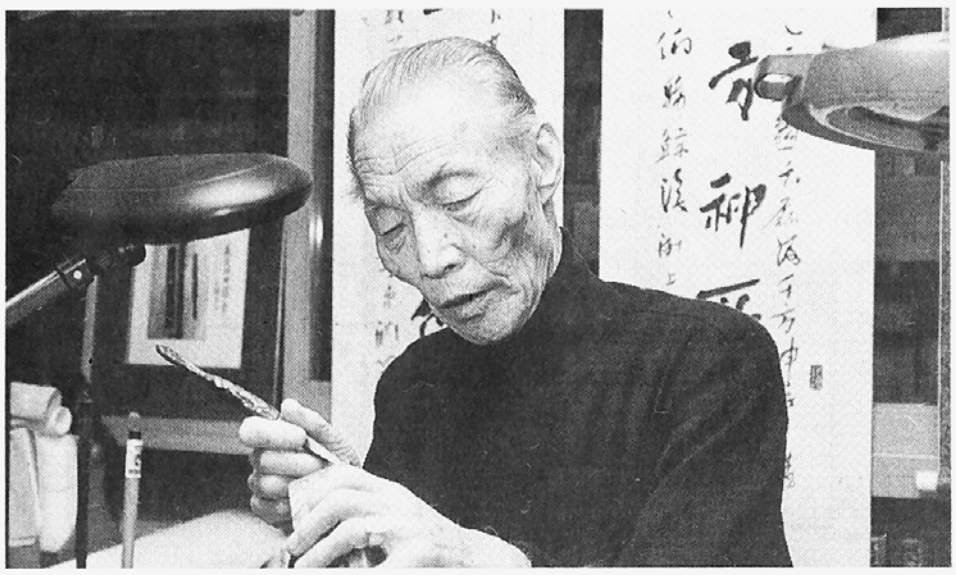
■ 구입처 : 홍법등 판매총판
■ 전 화 : (02) 763-5214
742-0085

"무념무상 일때 돌속 글씨 살아나"

산문밖의 禪

전각가

안광석 옹



화두들면 마음이 가는대로 철필도 움직여

法界圖印등 2만방 작업…보관분 印譜 출간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문자를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는 이들은 많다. 그 가운데 청사 안광석(78. 晴斯 安光碩) 옹은 돌에 글씨를 새기며 한평생을 살고있다. 하루에 많아야 10여자, 어떤 때는 한자도 쓰지 못하는 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글씨 받기를 고대한다.

안광석 옹이 하는 일은 도장 파는 일이다. 그렇다고 다른사람 이름자를 파서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들어 예술성 높은 작품으로 인정하는 '전각'이 그의 일이다. 적어도 그는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일인자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

홍릉의 자택 작업실에 들어서자 깡마른 체구의 노인이 "왔으니 차 한잔 해요"라며 익숙한 솜씨로 차를 낸다.

"좋은 돌을 보면 새기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평생을 새기다 보니 좁은 방안에 둘 데가 없을 정도예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방안은 전각된 인장으로 그득했다. 아마 3천방은 족히 되어보였다. 여기에 경전, 난, 수석, 화첩이 더하여 방안이 어수선했다. 그런데도 거기서 무언가 하나라도 빠지면 방의 위품이 서지 않을 듯하다. 모두가 조화롭게 느껴지는 가운데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안은 더욱 빛이 나 보였다.

안광석 옹은 이 방안에서 가장 친근한 벗으로 철필을 소개한다. 돌에 글씨를 새기는 칼을 쇠로된 필기구라 하여 '철필'이라는 것이다. 20여 년전 일본에서 흥광(興光)이라는 도검 기술자가 헌 범선에 박혀있던 대못을 가지고 만들어 그에게 선사한 것이다. 이 철필에는 '일도양단(一刀兩斷)'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그는 이제껏 수십년간 이 철필로 무엇인가를 자르고 있었던 것이다.

"전각은 도형성이 풍부한 전서체를 나무나 돌 등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록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고 전서체만 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행·초서를 비롯해 모든 문자를 다 새길수 있지요. 이는 전각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넓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각은 앉는 자세가 중요해요. 반가부좌하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자리를 바로 한뒤에 힘을 단전에 둡니다. 화두가 일었을때에야 마음이 가는데로 철필이 움직입니다. 숨을 멈출때 새기고 숨을 토할때 돌가루를 혹 불어 때를 벗기지요. 그러니 전각은 곧 선(禪)입니다."

그가 이처럼 전각과 선을 하나로 보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25세쯤일까. 그는 징용을 피해 범어사 동산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어려서부터 글씨,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를 동산스님은 기특하게 여겼다. 하루는 편지 한장을 써주며 당시 서예·전각의 일인자 위창 오세창을 소개했다.

"중이 전각하는 것은 외도가 아니냐"는 그의 의심에 동산스님은 "마음에 달렸다"며 "화두를 들고 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전각은 수행자가 찾는 화두가 되었고 철필로 생사를 양단내고자 했다.

50년 가까이 철필을 휘둘렀으니 생사가 어느정도 끊어졌기도 하련만 이 대목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만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많은데 아직도 장서인이 찍히지 않은 요긴한 책이 많아요. 만족한 장서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근래에는 철필이 가다가 글씨를 망쳐버리는 실패는 없다. 글씨를 새기는 기능적인 부분은 완숙단계에 이른 것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전각을 새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는 도법으로 전각에서는 제일 하수로 본다. '칼은 40도로 눕히고 밀지말아야 하며 당겨라. 음·양각은 이런것이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두어시간이면 마칠수 있다. 그러나 전각은 새기는 것보다 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생을 해도 마침이 없는 것이 포자다.

전각은 먼저 전법을 알아야 한다. 갑골문등 13종에 이르는 글씨의 형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법으로 글씨를 잘써야 한다. 이러한 전법과 장법이 되었을때 사방 4cm 크기의 면에 어떤 글씨를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배치하는가를 정하게 되는데, 전법에서 시작하여 글씨의 위치를 정하기까지를 포자라 한다.

이렇듯 마음으로 살려놓은 작품이 2만방가량 된다. 이 가운데 3천방은 손수 보관하고 있다. 모두가 인보(印譜)로 출간되었다. 특히 15년전 의상대사의 법계도 2백10자를 새긴 73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3년전에 원효스님 법어를 새긴 1백20방도 귀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 작품들을 넘겨주어야 할 곳을 찾고 있다. '딸 낳아서 시집보내듯 잘살고 천대받지 말아야 하는데'하는 심정이다. 박물관 몇군데에서 그의 작품을 요구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언젠가 선화가(禪畵家) 스님의 개인전에서 축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는 이자리에서 스님의 걸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보라고 했다. 색이, 디자인이, 구도가 어떻다고 따지다 보면 선화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작품 보기를 바란다.

〈이준엽 기자〉

"돌에도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퍼석퍼석한 돌이나 납이 박힌 것은 철필이 건너지를 못해요. 이것을 뛰다가 보면 옆의 글씨까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철필을 잡으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데로 철필이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이 아니고서는 어렵지요."

무념무상이 될때는 죽어가는 글씨도 살릴수 있다. 글씨도 생동감은 물론 획을 잘못 그으면 죽은 글씨가 된다. 이러한 글씨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마음인 것이다.



십화 · 이기선

보살피는 마음을 갖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⑲

사섭법

애어 자상한 말로 노엽지 않게

보시 재물과 법을 공양하는 일

동사 남과 고락을 함께하는 삶

이행 이웃을 이롭게 하는 행동

초가삼간 집이라 하여도 아늑한 곳에 에워쌓여 있으면 안온하다. 횡그라히 사방이 확트인 강가에 있는 오두막집은 바람을 맞는 빈도가 많다. 뿐만아니라 모래바람, 흙바람에 을씨년스럽다.

풍수가 좋다고 하는 것은 장풍득수(藏風得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곳에는 지온과 수질이 알맞게 되어 사람이 거주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곳이다. 양택하다는 것은 볕이 잘들고 바람이 쉽게 지나가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물이 좋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껴잡는 것이다. 잘 외호되고 보호되는 것을 섭(攝)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거주공간을 장만하는데도 양택에 다 신경을 쓰듯이 사람의 마음도 안아주고 감싸주고 껴잡아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남이 나를 껴잡아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 자신이 남을 위하여 껴잡아 외호하고 감싸주는 마음도 중요한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섭심(攝心)은 중요한 교설이다. 하찮은 생명이라도 시시각각으로 보살펴 주면 늘 푸른 생명을 지니게 된다. 아무리 좋은 난초일지라도 사람이 자식을 대하듯이 정성을 쏟아 넣지 않으면 난초는 시들어 버린다. 들꽃도 마찬가지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적당히 주면 야생초도 집안에서 길러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성이 껴잡고 감싸는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사섭(四攝)의 교설을 내세워 인간의 마음을 순화시키려고 한 것은 중요한 일이다. 순화되는 마음이 되면 남을 향하여 다정스레 눈빛을 주게 하고 가만한 손길로 쓰다듬게 하는 마음을 길러 가라고 한다.

날마다 사람을 대하게 되면 자애스럽고 자상한 말을 하여야 한다. 정감이 넘치는 사랑의 말을 하여야 한다. 칭찬하는 말,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 염원을 보내는 말, 이러한 말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 말의 생명은 말을 사용하는 자와 말을 건네 받은 사람 사이에 뜻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한다. 말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악담, 저주, 모욕, 모멸, 멸시, 천시, 홀대, 빈정, 폭언 등으로 서로간의 감정을 빗나가게 한다. 애어섭(愛語攝)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말로서 끌어들이고 껴잡아 감싸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쉽고 편한 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오장을 뒤집는 악구를 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일인가.

우리는 언제나 사탕스럽고 자상한 언어 사용으로 상대방의 생명에 노여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의 행위가 날로 달로 성숙하면 행위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운이 치솟게 된다. 그것은 말이 가는데로 마음이 가는 법을 헤아리게 된다는 이치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람의 말이 부드럽게 되면 무엇을 건네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것이 보시섭(布施攝)이다. 베풂을처럼 성스러운 행위도 없다.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상대를 껴잡아 안아올리는 것이고 바치는 마음이다. 보시는 진정코 바쳐 올림이다. 이 바쳐 올림의 마음 속에는 한치의 아상이 있을 수 없고 아집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는자와 받는자, 아니 거래되는 물건도 모두가 청정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이 보시섭이 숙달되면 다음 단계가 쉽게 열린다. 동사섭(同事攝)이다. 함께, 공동으로 하는 일이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치운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망종이 하는 일이다. 함께 하는 일, 같이 가는 길, 모두가 하나 되는 일. 이것 모두가 동사섭이다. 사회가 몰윤리, 부도덕한 난세에 접어 들고 있다하더라도 한사람 두사람 아니 몇몇이라도 동사섭의 길을 행하는 사람은 이행섭(利行攝)도 성만한 사람이다. 이타보리행(利他菩提行)이 이행(利行)인 것이다. 남이라고 한정짓는 생각은 아상과 아집을 키워가는 몸부림이다. 남을 나와같이 생각하고 껴잡아 에워싸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음이 선하게 된 마음씀이다. 우리는 몸부림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남을 돌보아 주는 마음씀이 중요할 것이다. 부림을 당하여 악업을 짓는 몸과 입을 씀을 자재롭게 하는 마음을 밝혀야 한다.

사섭법은 불교인만의 덕목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실천궁행하여야 할 윤리강령이다. 우리 모두 나 아닌 모두를 감싸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따뜻한 심성으로 환원하라. 먼저 남을 보살피는 무량심을 길러보자.

팔공산 은해사 3월 보살계 불사안내

일시 : 2539년 3월 31일(금) 19:00 ~ 4월 1일(토) 11:00까지(1박 2일, 음력 3월 초하루 ~ 초이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태양의 광명으로 비추어 줍니다.

온 세계가 법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아침 햇빛이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해사는 무량수 무량광의 화신이신 오도자(五道者)와 삼성인(三聖人)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깔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함께 하여 바닷물결이 충만하듯 은해(銀海)의 불법이 살아 숨쉽니다. 신라 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흥망성쇠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절인연이 도래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은해(銀海)의 팔공(八公)에 보살의 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은해사에서는 3사7증을 모시고 보살계 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39년 3월 일

三師

갈마아사리 청운 도원
전계대화상 동곡 일타
교수아사리 금성 도견

七證

설조 (불국사 주지)
근일 (부석사 주지)
무비 (범어사 전강주)
지하 (전 총무원 부원장)
법조 (고운사 주지)
법타 (평불협상임부회장)
혜인 (제주 약천사 주지)

■ 장소 :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 보살계 동참금 : 2만원

■ 문의전화 : 은해사 (0563) 35-3318, 5220
서울 전륜왕사 (02) 888-6300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동곡일타 합장

1908~1992

불교 문화재 연구문헌 1천여편

조각·탑파양식·서지학자료등 외형 편중
역사·사상성 조명등 질적향상 모색 급선무

불교미술·문화재 연구에 관련된 도서·논문은 1908년을 기점으로 1992년까지 모두 1천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교미술 또는 성보연구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연구현황은 〈한국불교총람〉등 목록들을 통해 조사된 것. 이번 조사에 의하면 불상 보살상 신장상 석굴 등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가 23.5%, 불탑 부도 석등 석비 당간지주 등의 탑파(塔婆)에 대한 연구가 19.1%를 차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 각종 경관 경·논·소 등을 연구하는 불교서지학 관련 문헌이 23%를 점유해 삼보의 하나인 불법(佛法)에 대한 연구의 활발함도 가늠케 했다.

◇불교미술·문화재 관련문헌(1908~1992년)

분 류	도서·논문 수	비 율
불교조각	234권	23.5%
불교서지학	229권	23.0%
탑파	190권	19.1%
불교공예	131권	13.2%
불화	110권	11.1%
불교미술 일반	55권	5.6%
불교건축	45권	4.5%
계	994권	100%

이밖에 범종 사리장엄품 향로 등의 불교공예품에 대한 연구가 13.2%, 불·보살화 진영 등의 불화관련 문헌이 11.1%, 가람 유물 유적지 불교미술(사상)사 등 불교미술·문화재 일반에 대한 연구가 5.6%, 불전 전각 사문(寺門) 등 불교건축관련 문헌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성보연구는 주로 양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성보문화재를 양식적인 면과 더불어 내용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박상국 문화재전문위원은 "아직까지 성보연구는 원칙적인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성보의 역사성과 사상성을 조명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축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의 조감도. 이 박물관은 지하 수장고와 지하 통로로 연결된다.

불교유물 4만여점 보존

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

5중감시문·항온·항습처리등 최첨단 시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 지하수장고에는 불교 유물 4만여점을 비롯한 6만여점의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KBS 9시뉴스에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밝혀졌다. 지하수장고는 75년 박정희정권하에 국가기밀시설의 하나인 국가안보회의·비상대각회의 장소로 만들어졌다가, 85년도부터 2년간 수장고로 개조 후 사용해 오던 것.

현재 수장고에는 전시유물 6천여점을 제외한 유형, 재질, 특성별로 분리 보관된 6만여점의 유물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CCTV장치, 30cm 철제금고, 5중 안전문 등의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이중 불교문화재는 절반이 훨씬 넘는 4만여점에 이를 것이라고 유물관리부 관계자의 말이다.

박물관 동쪽 50m 지점에 위치한 1천8백여평 규모의 수장고는 항온·항습 처리 등 과학적 보존처리 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

현 수장고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시 진동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새로 건립되는 조선왕궁 역사박물관을 지하통로로 연결, 왕궁박물관 완공 후 유물을 지하수장고에서 박물관 전시실로 옮길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파손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苦의 원인과 치료는 어떻게

문 지난 17호 본란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한 현직교사의 물음에 대해 스님께서는 '업보라는 생각도, 아픔까지도 내려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으로서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苦의 원인규명이라든가 치유를 위한 바른 생활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확실한 불자)

답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진화의 과정, 즉 해탈 열반을 향한 구도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육신을 지녔을 때 만이 아니라 저 미생물에서부터 억겁 윤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 어느 모습에 관계없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퇴보하느냐 좀더 진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비유컨대, 가령 풀벌레가 '나도 한번 저 창공을 날아 봤으면'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언젠가는 날짐승의 몸을 받아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만 이해를 돕기위한 빈 말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야 더 이를 말이겠습니까?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업과 윤회, 인과의 철칙이란 다 마음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니, 고통이니 따지지 말고 나온 자리에 되 놓아서 녹음테이프를 지우고 되 녹음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고의 원인규명을 통해 바른 지견을 갖추고 생활을 바르게 하는 도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몰락 놓는게 더 빠르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苦란 따지고 보면 나의 진화를 돕는 자비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야 부처님께서 이미 설파하셨 듯이 진작에 내가 지은 업의 산물이지만 업이라는 게 설사 죄업·악업일지라도 그것은 숙명적인 모종의 보복이 아니라 이전 어느 때에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삼독에 물들어 저지른 결과를 이제 바르게 시정하라는 내면의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苦는 고통, 불행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숙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수용하여 그 의미를 알아채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오늘의 나를 있게한 근본자리, 곧 주인공(공은 空입니다)에 몽땅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그 苦가 어떤 업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절로 알게 될 때가 오고, 그렇게 알고나면 오히려 그 苦가 성숙의 기회임을 감사히 여기게 되며, 그럼으로써 녹음테이프가 재생되듯이 苦는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절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이구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자꾸 이치로 따지려 할까보아 몰락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 쉽다는 분별마져도 내려 놓고 그대로 믿고 들어가십시요.

그것은 믿음의 힘이요, 힘있는 믿음엔 공덕이 있습니다.

'제법무아'란 무슨 뜻입니까

문 삼법인(三法印)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라는 말이 있는데 諸法에는 이름하여 불일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에 이름할 게 없다면 오늘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이며, '나'라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인천시 중구 사동·최재일)

답 항상 하는 얘기 입니다만 누구나 생활하는 중에 할나에 아버지노릇하고 엄마노릇하고, 자식노릇 형제노릇 사위노릇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 '응' 했다가 부인이 '여보'하면 금새 '그래'하면서 순간에 아빠이고 순간에 남편이고 합니다. 그 뿐이 아니라 할나할나에 이 생각했다가 그렇게 연방 돌아갑니다.

그럴 어느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할건가요? 쳇바퀴 돌아가듯 걸림없이 그렇게 잘도 돌아가는데, 한치의 틈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다 일일이 내가 있다, 내가 했다 하고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토를 달다가는 도무지 걸려서 돌아 갈 수 없겠지요. 내가 음식을 먹는데 요건 이름이 뭐고 어디에 좋고, 뱃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소화되고… 그런 걸 따지면서 먹나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고 먹었으니까 소화되고 하지 않던가요?

할나마다 천차만별로 그렇게 돌아가니 이름을 붙일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이름을 세울 게 없고, 그래서 공했노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름붙여 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양에 걸리고 이름에 걸려서 자꾸 '나'라고 할 어떤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한은 아무리 '제법무아'라고 해도 '제법무아'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름붙일 게 없다'했는데도 '그러면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질세계의 참모습을 설명해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려하기 보다는 물질세계의 겉모습만을 좇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지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없다면 모를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손에 쥐어주셨는데 물질세계의 거죽만보고 걸린다면 어느 세월에 진리를 알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안 보이는 50%의 정신계를 모르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하고, 어디에 붙는가 따지지 마시고 할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도록 하세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태국 '불교적 이상사회 주제' 워크샵

진월스님 연기·공생적 생활관계 역설
재덕박사 정신과 물질 균형개발 강조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응카와의 왕사닛 아쉬람에서는 '불교적 이상사회(The Dhammic Society)'를 주제로 한 워크샵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진월스님은 「한국에서 본 대승불교적 이상사회」를 발표했다.

진월스님(U.C. Berkeley대 박사과정)은 뭇 생명들사이의 공생관계와 사회 및 환경조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연기적 존재구조의 인식과, 모든 사람들이 이상사회 실현에 동참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적 이상사회구현을 역설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는 태국의 술락씨는 '가슴 함께하는 머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불교적 방안'을 주제로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의 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런 불교적 방법의 추구가 필요하다"며, 그 구체적 예로서 우리의 머리(지성)와 가슴(덕성과 감성)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했다.

영국 신경제협회 연구간사인 재덕박사는 '진취적 불교경제를 향하여'란 주제로 불교를 통한 인간 내면세계의 계발과 함께 물질과 정신의 균형있는 자기만족적 노력과 자연과의 조화를 새로운 건전한 경제원리로 강조했다.

"고속철 우회·경마장 외곽이전 하라"

'경주보존' 세미나 유적손상 우려… 古都보존법 제정 촉구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와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는 지난 18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역사및 문화연구분야 관련 16개 학회와 공동으로 '경주문화보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진홍섭교수(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경주는 중환자입니다'를, 김종철교수(계명대 박물관장)가 '경주개발과 유적보존; 경마장및 고속전철 건설을 중심으로', 박병주교수(홍익대 명예교수)가 '경주 도시개발과 역사적 경관 보전 정비의 문제'를 각각 발표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 노선의 경주통과, 경주경마장 건설등의 문제를 비롯, 경주보존에 관한 긴급 또는 장기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제안된 공동건의서는 경주의 옛모습을 보존해야 할 이유와 경주 유적의 현황, 위정자와 경주시민의 인식, 장·단기 대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16개 학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고신라, 통일신라의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장장 2천여년에 걸친 문화가 간직돼 온 경주와 그 부근일대는, 유네스코에 의해 아시아의 대표적 역사도시로 연구되어 왔다"며,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며 신라문화의 생명을 끊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주지역의 자연환경 파괴와 지하·지상에 있는 유적과 유물의 손상, 경주로의 우회노선은 고속주행에 위배되며, 그러한 노선으로 인한 추가 예산의 낭비를 들어 경주고속전철은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마장 후보지의 지하에는 수많은 고대유적이 분포되어 있고 경주를 유흥도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마장은 외곽지대로 옮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학회는 이밖에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 제정과 신경주 건설, 정부와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한 고도(古都)도시계획 등을 제안했다.

"국가문화재 정비 국고지원을"

경주시 재정압박, 보존사업 차질우려

경주시등 일선 시군이 문화재보존정비사업을 두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전액국비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문화재정비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3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신라문화권 문화재보존정비사업을 추진중인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소실된 사찰과 탑을 복원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은 국가지정문화재에까지 지방비 30%(도비15, 시비15%)를 부담시키고 있는데다 도지정은 도비50% 시비50%, 그밖의 문화재는 전액시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통합이후 재정압박이 심각한 경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액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남고루정비등 19개소에 52억원을 확정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때문에 시자체정비사업계획은 남사리폐복원등 6개소에 겨우 2억원만 투입할 계획이다.

영정조시대 불화발표회
한국미술사연구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지난 18일 오후2시 동국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영·정조 시대의 미술'이란 주제로 제46회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서 소재구씨(국립중앙박물관)가 '영·정조 시대의 석조미술'을, 김정희교수(원광대)가 '영·정조 시대의 지욕계 불화'를 각각 발표했다.

'불교와 기독교연구' 14집
一圓과 일치운동등 다뤄

미 하와이대 출판부는 최근 영문판 저널 〈불교와 기독교의 연구〉 볼륨14를 발간했다.

이번 호 저널에는 '일원(一圓)과 교회일치운동의 의의'/김복인, '종교적 직접체험의 다양성'/八木誠一, '주체성 없는 의식; 싸르트르의 배신론과 불교의 심'/스티븐 레이록, '정토교 신자의 신앙의식'/武田龍精 등 모두 29편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기사넘쳐 '한국사찰의 주련' 이번주 쉽니다.

수덕사 보살계 菩薩戒 수계대법회 안내

신춘을 맞이하여 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옵기 앙축하옵니다.

금번 호서 수덕사에서는 만공선사 탄신 제 백십사 주기를 맞이하여 당례를 올리고 보살계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입멸 후에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하나이까」하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날로 계를 파(破)하는 자 많고 지키는 자 적어졌습니다.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는 덕숭총림 방장이신 원담 큰스님과 혜정 큰스님께서 계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선지종찰이며 근세불교의 선풍을 중흥하신 경허·만공 선사의 선맥이 연연상속된 승가(家)의 종찰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불교수행의 가장 큰 공덕이며 불교신행인의 필수조건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대법회에 수희동참하시어 누겁에 쌓인 죄업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뛰어넘어 기쁨 속에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시길 산중대중(山中大衆)이 삼가 합장 발원하나이다.

1995년 3월 일

■ 일 시 : 1995년 4월 6일 오전 11시(음력 3월 7일)
■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 보살계 동참금 = 2만원 ■ 접수처 = 수덕사 종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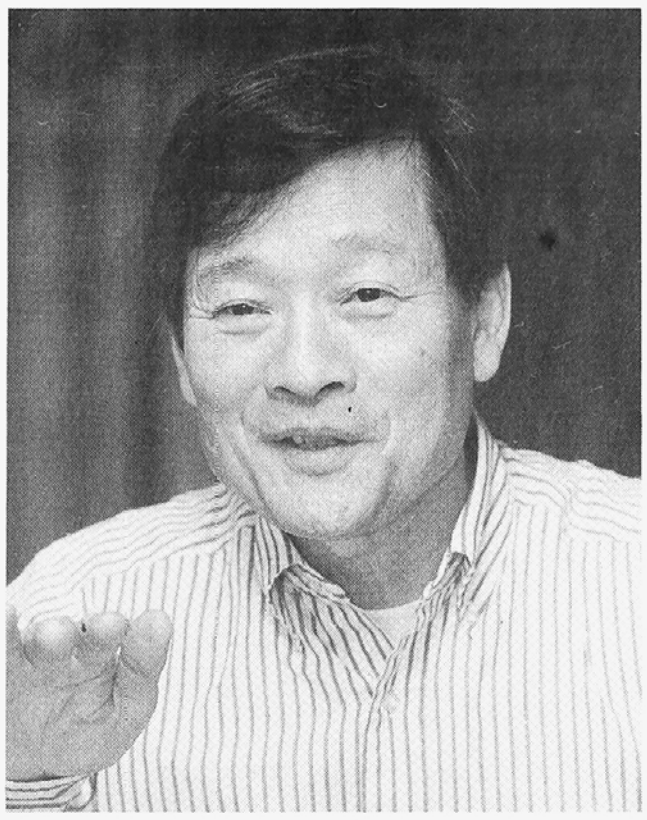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七교구 본사)
德崇叢林修德寺 住持 金法長 合掌

전 화 : (0458) 37-6565, 37-0071
팩 스 : (0458) 37-0072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 등 제 7교구 말사)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 사회위기 대응력 약해"

한국학연구교재 편집회의 참석한 뉴욕주립대 박 성 배 교수



뉴욕주립대에서 한국불교학을 강의하는 박성배교수(63)가 지난 11일 1년여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짧은 봄방학기간을 이용해 서울대와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학연구교재 편찬을 위한 편집회의에 참석키 위해서다.

박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뉴욕주립대측 편집책임자다. 13일 박교수를 만나 미국에서의 불교학연구 동향 및 한국불교에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그의 명함에는 동양철학 교수라는 직함과 함께 '한국학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은 직함이 찍혀 있다. 한국학연구교재는 뉴욕주립대에서 출판해 영어권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하나의 한국방문 목적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특강을 요청했기 때문. 한국에 들르는 길이고, 특강을 부탁한 사람이 그의 지도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윤원철교수(종교학)인 까닭에 거절할 수 없어 흔쾌히 승락한 것이다. 특강주제는 '문자-무문자 문화의 갈등과 화두선'이다. 선과 교, 나아가 동서사투리를 듣는다는 것은 반가움이었다. 어쩔 수 없는 한국사람이다.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미국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한국불교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3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과 비교하면 그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든든한 일이다.

"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사람들은…'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인 제자들이 '그런 말은 학자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지요. 버릇이 됐는지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일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는 한국불교에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 돈점논쟁에 참여하는가 하면 매월 두차례씩의 칼럼을 통해 불교의 내일을 전망한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핵심은 개인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지존파사건이니 박한상사건이니 너무나 어이없는, 세기말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이는 우리 문명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우리 몸에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조짐을 나타내듯이 사회도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불길함의 중심은 개인이 죽는 것입니다. 개인이 죽었다함은 인간의 물질화 평균화 가치상실을 뜻합니다. 개인이 죽어서는 사회의 보편적 고민을 껴안을 수 있는 보살도 없고, 사회구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살아야 한다는, 불교말로 하면 체(體)를 세우자는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불교와 불교학의 과제를 이렇게 설명한 박교수는 이런 문제가 불교학연구와 신앙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정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님들의 어록속에 담겨진 것은 물질화된 인간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며, 불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퇴계의 사단칠정론도 인간의 삶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교수는 "체가 약하다"는 말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했다. 운동선수를 빗대 "기술만 익혔지 기초체력이 없는 상태가 한국불교"라는 것이다.

즉, "선가에서 흔히 말하는 '앞생각 뒷생각이 툭툭 끊어지는' 순간 순간의 자유로움, 생명의 꿈틀거림을 체험하는 선의 전통이 퇴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잠깐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음이 칠보로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는 가르침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더욱 큰 일은 문제점도 던져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물으니 느닷없이 방망이질을 했듯이, 문제를 던져주는 기개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와 했다.

미국의 불교학연구에 대해서 박교수는 "미국사람들에게 불교는 외국의 문화현상이며, 따라서 이질감이 의외로 크다"는 전제를 붙이긴 했어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국불교학 연구수준은 불교문헌을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문헌비판과 언어·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서지학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6백년의 역사를 갖는 기독교성서학 연구성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불경학자'라는 말자체도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앞선 수준입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학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도 전해주었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구조와 학회 또는 저널이라는 다양한 기구의 활동 덕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불교가 더욱 발전하려면 신앙단체가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불교에 대한 구도적 열정을 지펴줄 수 있는 학문외적 충격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 풍토와는 대조적이지만,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성운 기자〉

'근본' 세워야 구제길 열려…불교학 과제

美, 한국문헌연구 수준급…서울대와 교재 공동제작

양문화를 비교하고 선의 입장에서 두 문화사이의 갈등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강연의 요지이다.

"한국학연구교재는 불교 유교 언어 문학 예술 음악 정치 경제 등 11권으로 출판됩니다. 집필은 서울대측에서 맡고 편집·출판은 뉴욕주립대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사상을 영어권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분야는 서울대 심재룡교수(책임집필자)와 5~6명의 학자들이 참여,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상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대산재단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간혹 남도의 억양이 튀어나온다. 표준말로 하면 '돼' '많이'로 풀이되는 '솔찮이'라는 사투리도 섞여 있다. 지난 77년 뉴욕주립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서 남도

나의 수행일기

랑 승 만 〈시인〉



16여년 동안 반신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업장중생에게 무슨 수행담이 있겠습니까. 그저 40여년 동안 시를 삶의 등불로 하고 불심을 영혼의 등불로 삼아 업장소멸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쳐 왔을 따름입니다.

수행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밥먹고 똥싸는 일도 수행이라면 다 수행이 아닐까요. 시를 쓰는 시인이고 보니 시를 쓰는 일 또한 수행이겠지요. 그래서 불교시를 많이 쓰고 싶으며, 이번에도 투병 이후 아홉번째 시집인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자비공덕입니다.

시인으로서의 내 아호를 '여천(如泉)'이라 했으니, 감로수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누옥의 당호는 여천암이라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천암에는 환공스럽게도 본존불로 석가모니불, 협시불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후불탱화로 아미타불 등을 모시고 일찍이 스님을 모셔다가 점안불사까지 했으니까요.

나는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아지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듯이, 사찰의 불사에는 큰 시주를 하면서 이웃을 돕자는 호소에는 각박해지는 불교계 풍토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1992년 봄, 운문사 승가대학의 초청을 받고 다녀오는 길에 경북 포항시에 사는, 신체장애로 전신마비가 되어 엎드려만 살며 시를 쓰는 이상열씨를 만났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는 한편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빠짐없이 조석 예불때마다 그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감히 수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당부이며, 작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삭발위승 출가사문의 몸이 아니니 도반이 어디 따

장애인과 아픔나누며 불구 극복

'불명 如泉'…이웃위해 감로수 되겠다는 서원



습니다. 조석으로 예불 독경 기도생활(주로 장애인들, 병든 이들을 위해)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속에서 하루하루 일체중생이 구제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7년에 수승한 인연이 있어 저 유명한 〈산골소녀 옥진이 詩集〉을 내준 이후 전국 각처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재소자들까지 시집을 내달라, 약값좀 보태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더구나 내자신도 반신불구의 몸인 탓에 그들에게 따뜻한 보시의 손길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천암 부처님께 원을 세우기를, 장애인들과 병든 이들의 아픔과 눈물의 길을 나눌 길을 열어줍소서,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5년전에는 '바라밀시서화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애자와 재소자들을 돕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내 업장의 두터움이 부덕의 소치로 나타나 그만 빚만 지고 장애인들과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헤어져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가람만 크게 짓는다고 불교의 위상이 높로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한 그들이 모두 나의 부처님이요, 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몇해전 불교방송의 '여성만세'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언제였냐고 묻기에 "나는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었으며,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불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따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답변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진정한 자비구현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는 중생들과 아픔을 나누는 현장이 바로 피안이요, 불국토가 아닐까요. 예불 때 내 기도의 첫마디는 '일체중생을 구제해 주소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앞에 갖다놓지 말고 불쌍한 이웃에게 갖다주는 것이 진짜 불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심부름꾼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계룡산 자광사·정대불사·보살계·탑돌이 기도안내

■일시 : 입제일 : 1995년 4월 6일 목요일(음 3월 7일) 오전9시
회향일 : 1995년 5월 23일 화요일(음 4월24일) 오전9시

귀의 삼보하옵고 화엄종찰 계룡산 자광사는 탄허(呑虛)대종사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불교의 대승 화엄사상을 계승발전시켜 조국통일, 국태민안, 불일증휘등을 위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도량으로 연례적으로 정대불사·보살계·탑돌이 기도등을 봉행하고 있는바 금번에는 3층 대법당 감로탱화 조성점안등을 봉행하오니 무루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3월 10일

●증 명/조실 : 박비룡
삼화상/전계사 : 정도원 갈마사 : 석천운 교수사 : 김현해
설 법/변각성 안혜거 이원행
유 나/혜 광
인 례/법 안
●동참금 : 25,000(영가 1인 5,000)

☎(042)822-6472~73
☎(042)822-9219~20
FAX(042)822-8304
대전 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49번지

계 룡 산 자 광 사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6)

鴻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⑥

心空境寂 只爲久滯不通
심공경적 지위구체불통
熟覽斯文 時時警策 强作主宰 莫徇人情
숙람사문 시시경책 강작주재 막순인정
業果所牽 誠難逃避
업과소견 성난도피

마음자리는 본래 텅비어 경계가 있지 않건만 단지 번뇌망상이 오래도록 앞을 막아 통하지 않는 것이니
이 글을 익히 살펴보고 때때로 경책하여 주장자를 굳게 세워서 (깊은 신심과 정진하는 마음 다 잡아서)세간 도리에 끄달리지 말지어다.
업의 과보가 이끄는 힘은 참으로 도피하기 어렵도다.

聲和響順 形直影端
성화향순 형직영단
因果歷然 豈無憂懼
인과역연 기무우구
故 經云 假使百千劫 所作業 不無
고 경운 가사백천겁 소작업 불무
因緣會遇時 果報 還自受
인연회우시 과보 환자수
故知 三界刑罰 榮絆殺人
고지 삼계형벌 영반살인
努力勤修 莫空過日
노력근수 막공과일
深知過患 方乃相勸行持
심지과환 방내상권행지
願 百劫千生 處處同爲法侶
원 백겁천생 처처동위법려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순하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다.
인연법이 역연하니 어찌 근심 걱정이 없으리오
고로 경에 이르기를, '가사 백천만겁이 지나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이 모일 때는 과보를 되돌려 받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 삼계의 형벌은 모두 사람들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얽어맨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고 닦아서 허송세월 하지 말라
(사람들은)깊이 허물된 병을 알고서야 이에 바야흐로 수행하기를 서로 권하노니
원컨대 (그대들과) 백천다겁생에 태어나는 곳곳마다 한가지로 불법닦는 도반이 되리라.

未免三輪 何時休息
미면삼륜 하시휴식
貪戀世間 陰緣成質
탐련세간 음연성질
從生至老 一無所得
종생지로 일무소득

이에 교훈으로 새겨 이르노라.
허깨비 같은 이 몸 꿈 속의 집이여 공 가운데 나툼이로다.
지나온 길 끝 없거니 앞길 어찌 짧겠는가.
예서 낫다 제서 졌다 오르내림에 피로하기 이를데 없노라
삼계윤회 면치 못하니 어느 때에 쉬겠는가.
세간사 못내 그리매 오음연기 바탕되네
태어나 늙도록에 한자기도 소득없거늘

根本無明 因茲被惑
근본무명 인자피혹
光陰可惜 刹那不測
광음가석 찰나불측
今生空過 來世窒塞
금생공과 내세질색
從迷至迷 皆因六賊
종미지미 개인육적
六途往還 三界循環
육도왕환 삼계조복
早訪明師 親近高德
조방명사 친근고덕

근본무명 이로인해 미혹에 빠지니
광음세월 애석토다 할나도 고정됨 없으매
금생을 헛되이 보내면 내생에도 아득막막
미혹 좇다 미혹에 이를 뿐이라, 이 모두 육적 때문
육도를 돌고돌며 삼계를 기어 다님 이로다
일찍이 눈 밝은 스승찾고 고승대덕 가까이 해

乃爲銘曰,
내위명왈
幻身夢宅 空中物色
환신몽택 공중물색
前際無窮 後際曉劇
전제무궁 후제령극
出此沒彼 昇沈疲極
출차몰피 승침피극
決擇身心 去其荊棘
결택신심 거기형극
世自浮虛 衆緣豈通
세자부허 중연기립
研窮法理 以吾爲則
연궁법리 이오위칙
心境俱捐 莫記莫憶
심경구연 막기막억
大根怡然 行住寂默
육근이연 행주적묵
一心不生 萬法俱息
일심불생 만법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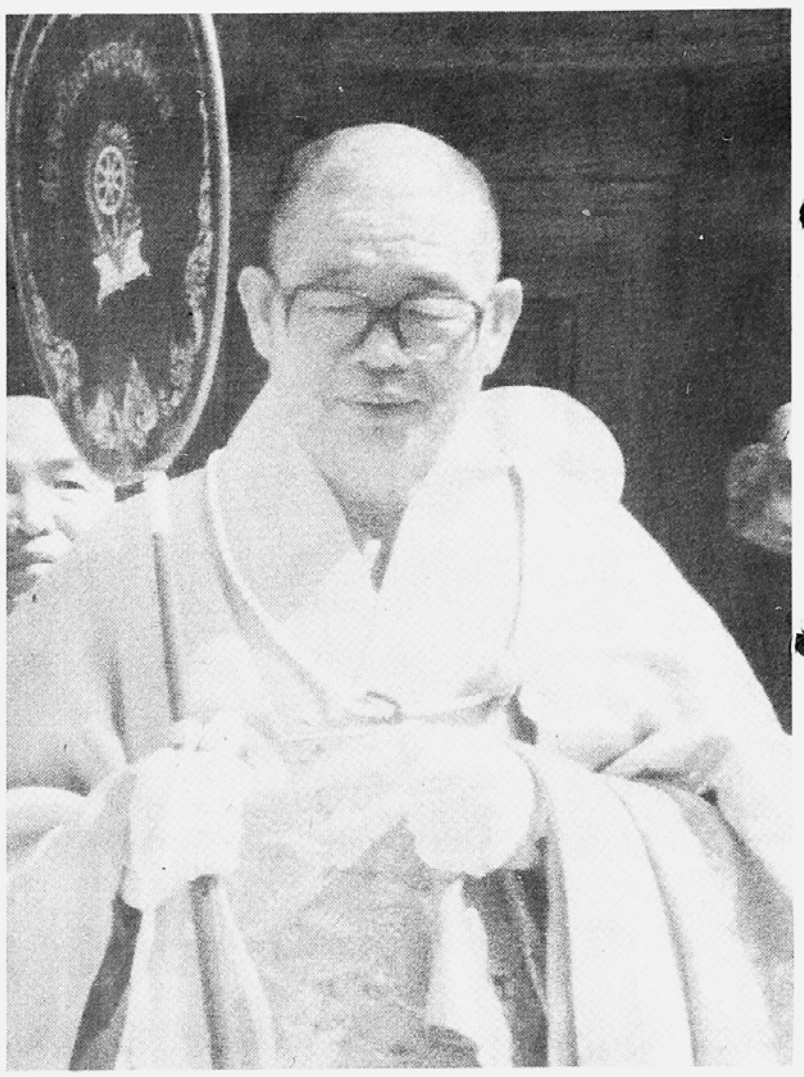
몸과 마음 다잡아서 가시 밭길 제거하라
세간이란 절로 들떠 허망한 것 갖가지 인연이 어찌 핍박 하겠는가
가르침 궁구함은 깨달음을 법칙삼네
마음·경계 함께 여워 기억·생각 하지말라
육근이 고요하면 행주좌와 적적묵묵
한생각 일지 않으매 만법이 다 쉬어 고요하리라

龍眼

한 생각 일지 않으면 만법이 다 고요해

★ 지 상 법 석

"아집 내세우고 살면



청하스님 〈영축총림 부방장〉

약력
- 1927. 10. 4 生
- 1946. 1. 15 월하스님 은사로 득도
- 조계종 제2, 3, 5, 6대 중앙종회의원
- 1988. 10. 15 통도사 영축총림 부방장 취임

天地者 萬物之逆旅요
光陰者 百代之過客이라
우주천지라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쉬어 가는 객사요
광음(세월)이라는 것은 백년 동안 쉬어가는 나그네 일 따름이라.

浮生이 若夢하니 爲歡幾何오
뜬구름과 같은 삶이 마치 꿈과 같으니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꿈과 같은 이 사바세계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기 이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참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소식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뜻깊은 날이지만 이 소식을 미처 깨닫지 못했으면 더욱 더 용맹정진 하셔야 합니다. 결제, 해제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심할 때가 결제요, 성불할 때가 곧 해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요식으로 '해제'했다고 해서 본래면목의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제 따로있지 않아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자기의 본래면목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 경지가 향상되었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증자득(自證自得)이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얻어야지 무슨 물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일찌기 알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과연 삼계를 초출(超出)하고 자기 본래 면목을 증득했는가를 자기 자성에게 회광반조해서 깊이 통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든지,안거를 많이 했다든지 하는 형식에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조스님은 나무를 베어팔고, 방아를 찧어 가면서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증득했습니다.
부처님이 마하 가섭에게 전한 이심전심(以心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 삼처전심(三處傳心) 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정진하시어 대오각성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과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역대 제대조사가 출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과학으로나 물질문명도 이 도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가히 얻는다고 하나 본래 얻을 것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본래 조선이라는 것은 육조 혜능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조계문중의 이심전심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육조스님께서는 상이 있는 의발을 전해 받은 분이지만 스님께서는 의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에 끄달리는 중생이 형식에 집착해 과별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과오가 생기므로 형식을 전하지 말고 이심전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이후에는 의발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문에서는 설교보다는 불립문자 견성성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설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주된 법문을 소개하면 임제조계법문인데, 임제의 할, 덕산의 30방입니다. 즉 모든 물음에 대해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이고,조주의 다(茶) 즉 조주에게 법문을 청하는 모든 이에게 '차나 한잔 마시게'하여 법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써 본래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 여하시본래면목(如何是本來面目)이닛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것이 본래의 참 모습인가"
이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는데 형식 형상 모양이 있는 유위법이라 하며 세상의 법은 모두 이 유위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유위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형식 형상이 없는 무위법으로 공부합니다. 법도 무위법이요,설법도 무설이라. 설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지만 설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몸도 본래 없는 곳에서 왔지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괴로움은 우리 자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도 없는 것인 바 우리는 무(無)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한 것입니다. 허공은 비어있지만 진정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라는 것은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법계선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법신이 대지와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비로자나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란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점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콩이죄·전유어·북어찜 등
이조 924-9211
고반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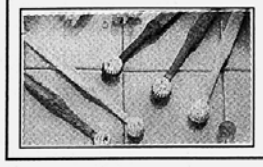
YBM 시사영어사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역삼하이츠1빌딩 17F 765호)
전화 : (02) 558-5167~9, 565-5244
팩스 : (02) 566-1246

교육 행정직 사원모집
■ 모집인원 ○명
■ 응시자격
1) 학 력 4년제 대학 졸업자
남자 1965년 이후 출생, 병역필 면제자
불심이 돈독한 교육학 전공자 우대
2)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서류접수마감 3월 22일~31일
3. 서류면접 4월 7일 오전 10시(고려원 사무실)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사진첨부 3×4cm)
2. 이력서 1부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4) 문 의 처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교육원
전화 (02)732-4923~4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 645-6224
대구 :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주)미래 케이블 TV
Future's Cable Television, Inc.
중앙대리점
불교 케이블 TV 가입문의 환영
張 載 豪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2-41(대창빌딩 3층)
TEL.(02)992-4777~8, (02)991-3197~8 / FAX.(02)992-47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 (02)279-2715
팩스 : (02)275-3739

단청·불상·탱화·개금
*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
■실 적
• 안암동 개운사 일주문
• 제주 보림사 4천왕(9자) 조성 및 단청
• 일본 동대관시 금룡사 청광사 단청
• 성산 일출봉 동암사 청동삼존불(4자5치) 조성 및 각단 탱화 조성 상기의 100여 사찰불사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 4242-511, 4822-511, 4252-025 FAX:477-2751
호출기 :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011-267-2510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사 과 문

귀의 삼보하옵고
사부대중에게 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17:20분 불교방송(BBS)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 시간에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BBS 프로듀서협회 명의로 생방송한 부분에 대하여 불교방송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경솔하게 방송함으로써 스님과 불자 여러분에게 큰충격과 무례함을 안겨준 점에 대해 저희 방송사는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명서 내용 중에 종단과 삼보를 훼손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저희 방송사는 참회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불법홍포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39년 3월 10일
불교방송 사장 합장

지상법석 ★

'부처님 바다' 못 들어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나를 깨닫도록 우리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의 몸체입니다.

비로자나 전신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지혜의 바다인 해인삼매입니다.

화엄경의 해인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 바다와 같이 깊고 한량없는 삼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부처님의 비로자나 삼매 속에서 모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문수보살로 부터 보현보살로 회향할 제, 보현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변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재동자는 어째서 발심을 했습니까?

선재동자와 같은 이웃에 똑같은 나의 세계를 떠나서 부처님의 해인삼매 속,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서 영겁토록 죽지 않는 우리의 삼먁삼보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설법을 듣고 발심해서 부처님의 법계에서 부처님의 크고 넓은 진리를 구하고 생사의 바다에서 헤엄쳐 무생법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산림의 회향은 회향이라 하는 실제회향, 중생회향, 법계회향과 여기에 실제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 영단의 위패와 그동안 기도 드리고 설법을 듣던 분들과 또 그 원력이 남고 그 법력이 넘쳐서 모든 중생계에 미치고 그러고도 남으면 법계, 이 우주에 가득찹니다. 고루고루 부처님은 광등하도중생을 위해서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은 상주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껄데기 옷을 보았지 부처님의 자성자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선사는 선사의 옷을 보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보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보고, 군인은 군대의 군복을 보고, 경찰은 경관의 복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만약 군인이 군복을 벗고, 경관이 경관의 옷을 벗고, 여자가 여자의 옷을 벗고, 남자가 남자의 옷을 벗고, 모두 벌거벗고 일어서면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체상은 똑같습니다.

선사나 부처님이나 달마나 그 체성, 진여의 체는 똑같습니다. 이 지구의 인고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의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는 다르지만 해가지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비로자나 광명의 빛을 받아서 설법하는 53선지식이 마치 해가 동쪽에 뜨면 햇빛을 받아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물도 보고 집도 보고 빌딩도 보고 차도 보고하지, 만일 햇빛을 받지 못하면 분별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으면 캄캄한 허공지옥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그 빛을 받아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와같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삼매에 들고 설법을 하는 것이고, 모든 보살은 부처님의 신력과 광명을 받아서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합니다.

법계는 일체가 평등

모든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슬피여기고 중생을 어여쁘게 여기지만 중생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상념자(常念子)해도 자(子)는 불염부모(不念父母)라

부모는 항상 어린자식을 걱정하고 생각해도 자식은 부모를 생각 한하는

백년후 '나' 생각하며 생사초월 소식 깨닫자
삼세제불·역대조사들도 대신 공부 못해줘

이 일곱살 먹은 동자가 셋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한사람 죽고 또 일주일 전에 한사람이 죽고 이번에는 선재동자가 병으로써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자연의 적멸법문

여러분도 일주일전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일주일 후에 여기있는 사람도 그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생멸의 무상, 그 늪으로 빠져들고 또 앞으로 일주일, 1백년 후에는 여기있는 사람 모두가 이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실까요. 여러분은 살다가 늙고, 늙다가 병들고 죽는 이 생사의 늪에서 참으로 부처님의 비로자나 전신, 그 법성체에 귀의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사를 초월한 진여에서 살지 않으면 다시는 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우리의 육신을 떠나고 우리의 이러한 형상의 세계, 무상게 널리 회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산림의 회향이요, 우리 선가에서는 반 산림이라 합니다.

법신(法身)은 항적정(恒寂靜)하고, 청정(淸淨)은 무위상(無爲常)이로다.

법신자리는 말로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리킬 수도 없고, 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대변제라 항상 적정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대우주는 침묵하면서도 큰 변제를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법문을 하고 여름에는 여름법문을 하고 추우면 바람소리, 물소리, 저 단풍잎도 대 자연의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법문을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백분의, 천분의, 만분의 일도 거기에 속하지 못합니다. 대자연은 침묵으로써 말도, 색상도 없고 형상도 없이 그림자가 없는 그러한 침묵의 적멸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문을 들을 줄 모르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생사의 굴레에서 육구가 다 벌거벗고 나오면 몸은 똑같습니다. 서양사람, 동양사람이 머리깎고 이 자리에 서면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여의 체성은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똑같습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에든 얼음은 병처럼 생겼고 고드름은 히말리야 설산처럼 생긴 것처럼 각기 그 모양은 다르지만 만약 그 물이 녹으면 그 모양이 하나도 다를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눈이, 얼음이 다 녹으면 똑같은 물로 되듯 진여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물이 다르고 서양의 물이 다르고 미시시피강의 물이 다르고 갠지스 강의 물이 다릅니까?

다 같습니다. 대해에 들어가면 성인이나 범부나 그 일체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여에 들어 선재동자와 같이 법계에 들어가면 선재동자의 자성이나 우리의 자성이나 중생의 자성이나 부처님의 자성이나 법성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해인삼매입니다. 겉모양 보것과 같습니다.

그와같이 모든 제불은 중생을 위해서 모양을 바꾸시고 태어나시고 생사를 보이시지 중생을 위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시현하지 않고 역대 조사, 선사도 없습니다. 다 중생을 위해서 모양을 보이시고 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세계가 자기란 세계 속에서 아집이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 처럼 거기에 살고있는 중생은 거기 밖에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밖에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우물안 개구리, 그래서 부처님의 넓은 대해 같은 불교의 화엄경의 도리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의 화엄은 너무나 광범해서 듣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화엄산림 회향에 이르러서 그동안 수고하신 법사스님과 제불보살님, 그리고 갖가지 방편으로 선재동자가 친견하고 찾아가는 구비구비 곡절마다 간곡한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같이 부처님을 찬송합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⑲

양 형 진

연기에 의한 감각경험

얼마전 어느 불교대학의 강의에서 바닷물은 왜 짜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국민학생 수준의 질문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매우 의미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답변은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무기물이 물 속에 녹아 들게 되는데, 오랜세월 물이 증발하여 농축됨에 따라 바닷물은 높은 농도의 무기물을 포함하게 되고 특히 그중에서도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짠 맛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어떤 화학물이 들어있기만 하면 짠 맛은 저절로 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그렇게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아주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사실이 모든 생물에게 보편적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짠 맛을 감지할 수 없는 생물이 존재한다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아마 그럴 것 같다). 인간에게는 아주 짠 소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물은 전혀 짜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대답은 인간의 미각을 전제하여야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관련하여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무지개는 왜 생기는가? 이는 대학교 수준의 물리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굴절과 반사의 법칙, 그리고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은 굴절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비가 온 후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떠 있으면 태양의 반대쪽 방향에 둥글게 무지개가 뜨는 이유를 위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시각 기능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빨강색에서 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빨강색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지개는 9가지 색이 될 것이다. 빨강색만을 감지할 수 있는 생물에게는 무지개가 빨강색 만으로 만들어진 원호가 될 것이다. 더 극단적인 예로 하늘색만을 감지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 생물은 하늘색과 무지개를 구별하지 못하여 무지개라는 현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시각과 미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감각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청각에 있어서도 인간은 특정한 주파수 즉 20에서 20,000싸일클에 해당되는 음만을 들을 수 있다. 그 한 예가 우리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각이나 촉각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며 또한 선택적이어서, 인간이 감지하는 생리 한계 내에서 우리의 신체가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대상과 화합되어 있어야 지각경험이 나타나게 된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만으로 무지개는 생기지 않는다. 적절한 위치에 있는 물방울, 태양, 광학 법칙, 우리의 감지 기능이 모두 화합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감각 기능에 대하여 이 감각 기능에 관련되는 감각을 제공하는 객관이 화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의 지각경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이 지각경험을 제공한 대상은 비로소 짜다거나 무지개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엮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엄경에서는 이를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 하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데바보살은

대상 화합 때 지각경험 나타나

빛을 감지할 수 있기에 무지개 색깔 보여

인간에게는 아주 짠 소금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물은 전혀 짜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대답은 인간의 미각을 전제하여야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관련하여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무지개는 왜 생기는가? 이는 대학교 수준의 물리학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굴절과 반사의 법칙, 그리고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은 굴절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비가 온 후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떠 있으면 태양의 반대쪽 방향에 둥글게 무지개가 뜨는 이유를 위의 설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시각 기능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빨강색에서 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빨강색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이나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지개는 9가지 색이 될 것이다. 빨강색만을 감지할 수 있는 생물에게는 무지개가 빨강색 만으로 만들어진 원호가 될 것이다. 더 극단적인 예로 하늘색만을 감지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 생물은 하늘색과 무지개를 구별하지 못하여 무지개라는 현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시각과 미각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모든 감각 기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청각에 있어서도 인간은 특정한 주파수 즉 20에서 20,000싸일클에 해당되는 음만을 들을 수 있다. 그 한 예가 우리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각이나 촉각의 경우에도 비슷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각은 제한적이며 또한 선택적이어서, 인간이 감지하는 생리 한계 내에서 우리의 신체가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대상과 화합되어 있어야 지각경험이 나타나게 된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만으로 무지개는 생기지 않는다. 적절한 위치에 있는 물방울, 태양, 광학 법칙, 우리의 감지 기능이 모두 화합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감각 기능에 대하여 이 감각 기능에 관련되는 감각을 제공하는 객관이 화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의 지각경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이 지각경험을 제공한 대상은 비로소 짜다거나 무지개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엮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엄경에서는 이를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 하면 허망하게 멸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야심경에서는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데바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성향미촉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안이비설신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안이비설신의가 없다고 한다면 색성향미촉법도 또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인연따라 화합되었다. 이는 곧 생멸법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객관 세계의 성품을 말한 것이다. 이는 객관 세계가 본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며, 이 문제를 이 글에서는 언급만 하고 자세하게 취급하지 못한 '우리의 지각경험에 나타난다' 는 문제와 함께 연기론이나 중관 철학과 연관시켜 앞으로 더 다루어보겠다.

이 글과 연관시켜 한 가지 하고싶은 말이있다. 많은 사람이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그래서인지 불교를 과학과 연관시킬 때에도 현대의 첨단 과학과의 관계가 많이 논의된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고전과학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현대과학에 와서 비로소 제대로 조명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첨단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과 연관되는 과학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증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으며 또 그래야 할 것 같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황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용신안 : 14461호
의장등록 : 38353호

홍법 장엄등 영 가 등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법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법용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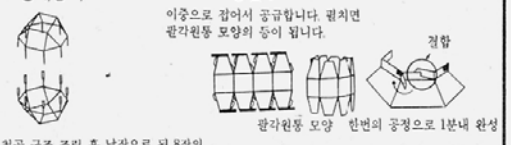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종래방식 ■홍법등

이중으로 감아서 공급합니다. 원치면 팔각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철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겉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인 후 건조

팔각원통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 (032) 613-4027~8 팩스 : (032) 665-0965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하실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 / 신국판 / 404쪽 / 값 6,5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20

또 하나의 임춘인가

아홉사람에 한 사람이 더하였다. 이제 무욕도는 오래동안 사람없는 세월을 오직 파도소리에 에워싸인 채 보내다가 한 사람의 선승을 받아들인 이래 열 사람이 사는 섬으로 바뀌었다.

우연히 이 섬에 건너와 여기저기 살핀 끝에 샘물 두어군데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고독한 수행을 일삼았던 인담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온 선비 김종무까지 아우르는 때에 이르렀다. 그것은 갑자기 고리채(高利債)가 불어난 어이없는 사정과도 같았다. 아니 그것은 한 마리의 돼지가 여러마리의 돼지새끼를 낳아 갑자기 돼지우리 안이 그들먹한 것과도 같았다.

이런 비유가 조잡한 것이라면 저 라마승의 화공(畵工)이 정교하게 그려낸 금강계(金剛界) 태장계(胎藏界)의 양부만다라(兩部曼荼羅) 혹은 잡(雜) 만다라의 세계 한 부분에 오순도순 제존(諸尊)만이 모여있는 그 신령스러운 평화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이같은 비유 따위가 도대체 헛된 바 있다. 그저 하나였다가 그 하나의 우연이 아홉이나 열의 필연으로 바뀐 것이었다.

새로 섬에 올라선 선비에 대해서는 인담이 나섰다. 웬일로 우녀는 뒤로 물러선 채 인담의 거동에 그 낯선 남자를 맡겨버린 것이다.

인담이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맞았다. 정중한 바가 더 손님에게 군림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인담의 첫마디에 뼈가 들어있었다.

"공(公)께서는 유건(儒巾)을 쓰시고 불가(佛家)에 귀의할 뜻인가요?"

"이미 소생은 주자(朱子)를 떠났습니다. 유건은 썼으되 이 바다에 벗어던질 일입니다"라고 그 자신의 결의를 밝혔다.

그의 대답은 어느덧 한 구절의 시를 읊는 것으로 이어졌다.

오래도록 유락(流落)하며 서울을 떠나
초(楚)나라 관(冠)을 쓰고 남방음곡(音曲)을 썼나니
(久因流落去長安
空學南音戴楚冠)

이 구절을 듣고 인담은 깜짝 놀랐다. 이는 분명코 고려 무신난 이후 임춘이 이미수(李眉叟)와 더불어 그의 맹우(盟友) 이담지(李湛之)의 집에서 지은 즉흥 칠언시(七言時) 첫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어디서 이 시를 읽으셨나요?"

하고 인담이 물었다.

"읽다니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대로 소리를 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이 지었단 말이오?"

"소생이 지은 것인지 이 섬이 지은 것인지 모르나… 이 한 구절이 분명코 기왕의 것이 아님에는 틀림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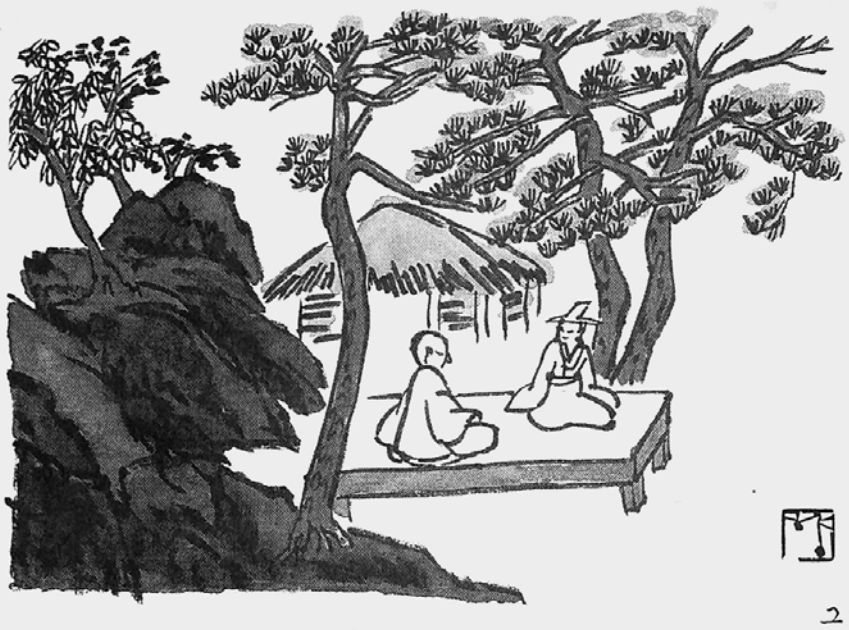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틀림없다?"

인담은 더욱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선비를 그대로 새로 지은 갈대암자 토방 평상에 앉혀두고 그의 처소를 갔다. 가서 「서하문집」을 뒤적였다. 그의 밝은 기억 그대로 선비가 읊는 것은 임춘의 것이었다.

인담이 나와서 선비 앞에 마치 친국(親鞫)이라도 하는 왕처럼 서 있었다.

"그것은 정녕 서하선생의 소작(所作)이거늘"

"?"

"그렇거늘 어찌 그것을 공이 지은 것으로 삼는다는 말이오"

"?"

"유림(儒林)에서는 그런 거짓이 통할지 모르나 이 공문(空門)에서는 한오리 거짓도 통할 수 없오. 아니 이곳에서는 참도 참이 아닌 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뜻이라… 무슨 말씀이신지오"

"자… 방이나 정해드릴 터이니 우선 이 섬이 살 곳인지 떠날 곳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인담의 말은 쌀쌀하였다. 하필이면 웬놈이 그가 마음 속에 섬기고 있는 임춘의 시를 제 것이라 읊어대는가 하고 그는 내심 괘씸하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 한편 그런 임춘의 시를 외우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저으기 반갑지 않은 바도 아니었다.

그럴진대 고려시대의 불우한 시인 임춘은 몇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결코 파묻힌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방을 안내하며 한번 더 그 시의 사연을 물었다.

"아까 그 시 어디서 읽은 것이오?"

선비의 대답은 전혀 그 질문에 아귀가 맞지 않았다.

"그냥 흘러나온 것입니다… 어디서 읽었다니요… 하기야 당음(唐音) 송부(宋賦)를 다 읽었으니 비슷한 것으로 지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

"글쎄 올시다"

인담은 더이상 그 시의 앞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다.

그날밤 인담은 웬일로 밤 정진을 마치고 나서도 4경(四更)에 접어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들었다 하면 깨어있고 깨어있다하면 잠들어 있었다. 그러는 중에 문득 그의 꿈 속의 스승 고려의 선승 담인이 실로 오랜만에 꿈 속에 나타나서 "지금 네가 임춘의 후신(後身)을 만나고 있느니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랐다. 가슴팍에 땀이 돋아나고 있었다.

"임춘의 후신! 그렇다면 어제 건너온 선비가 그렇단 말인가"

그 감창협의 첩 소생인 종무는 어찌어찌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어 급제하였건만 서얼 신분이 밝혀지는 불운을 만났다. 이것도 당쟁의 와중에서 상대방의 탄핵 대상이 되고도 남은 것이다.

바로 그날밤 어머니를 하직한 이래 여기저기 떠돌은지 꽤나 지나 충청도 덕숭산에서 병든 몸을 요양하다가 문득 바다와 섬을 생각해내어 이 무욕도에 건너온 것이다.

다음날 인담은 김종무와 산꼭대기 움막으로 동행하였다. 거기는 솔바람소리가 위장이 나쁜 사람이 빈 위장안을 비로 쓰는 것 같은 아픔으로 들리고 있었다. 높은 곳이라 파도소리가 사방에서 더 크게 몰려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인담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소. 단 한 가지가… 지금 공은 관가에서 쫓기는 신분은 아닙니까?"

선비 종무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다만 버슬을 할 수 없는 처지일 뿐입니다"

인담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기서 화두(話頭)나 하나 잡고 살아갑시다"

"이미 소생은 무욕도의 제자입니다"

"좋습니다. 이로부터 내려가 이 수행처의 보살을 만나보시오"

하고 그를 데리고 내려와 우녀에게 새삼 소개하는 것이었다. 우녀가 그를 보자 함박꽃 웃음으로 반기는 것이었다.

"이제 10인 결사(結社)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지혜의 용궁(龍宮)까지 다 떠오르게 해서 이 바다 어디에도 어리석은 소리가 없게 하시오. 하기야 언제 어리석은 소리가 있었던 바다이겠습니까만"

우녀는 인담에게 당부하였다. 앞으로 7일동안 잠자리에 눕지 않는 정진으로 지낸 뒤 결사의 의례(儀禮)를 갖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새로 온 김종무도 참가해야 하였다.

인담이 곡절 많은 그 선비에게 법명을 붙였다. 불이(不二)였다.

"이제부터 김가니 이가니하는 것을 떠어버리고 그저 불이라는 이름 뿐이오. 끝내 이 불이라는 이름도 화롯불에 내리는 한 점 봄눈에 지나지 않을 것을"

이렇게 해서 무욕도의 열사람이 7일동안의 금식(禁食)을 위해서 샘물만 하룻밤 재운 뒤 하루에 반되 가량 마시는 것으로 좌선 정진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남처사가 슬쩍 좌선을 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가 나가는 줄 몰라야 하였다. 하지만 모를 리 없었다. 다만 남처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중에도 만화가 슬쩍 가부좌를 풀어 밖으로 나가보았다. 벌써 남처사가 해우소(解憂所-뒷간)에도 후원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만화의 뇌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는 배를 메어둔 안벼랑으로 달려갔다. 거기 남처사가 떼를 붙인 배를 풀어서 타고 있었다. 만화가 긴 밧줄을 던져 남처사의 몸과 상앗대를 한꺼번에 감아버린 것이다. 결국 남처사는 만화에게 끌려서 다시 섬에 올라서야 하였다.

"이 작자야!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더구나 나를 두고"

"…"

"날 따라와!"

만화는 자신만만하게 앞장 서고 남처사는 풀이 죽어 뒤를 따랐다. 그러다가 남처사가 돌 한 덩어리를 집어 만화의 뒷통수를 치는 찰나, 만화가 휙 뒤돌아서서 남처사의 뱃구리를 차 넘어뜨렸다.

"이 작자가 비겁하기는… 뒤에서 사람을 쳐 죽이려고… 내가 15년동안 너를 데리고 살아온 세월이 헛 것이었다"

만화는 남처사를 끌고 가서 새로 지은 암자 뒤켠으로 갔다. 거기에 도끼가 있었다.

"네 놈의 손으로 다시는 노를 저을 수 없을 것이야"하고 외친 뒤 바로 그 도끼로 남처사의 바른 팔목을 찍어 버렸다. 피가 치솟았다.

"아앗!"

그때 저쪽 큰 암자 안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인담과 우녀 그리고 수원들이 나왔다. 수월이 재빨리 남처사의 잘린 팔목을 천으로 묶고 흙을 물에 개어 붙이고 동여맸다. 남처사가 엉덩이를 땅 위에 띄우다가 넋을 놓은 채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우녀가 단호하게 말하였다.

"저기 잘린 손목을 어서 땅에 묻으시오!"

수월이 그것을 흙을 파고 깊이 묻었다.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을 첫날로 삼읍시다"

남처사까지 방안에 기대어 앉힌 그 7일 정진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남처사에게는 흙을 뿐인 것 밖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는데 곧 지혈(止血)이 되었고 심한 아픔도 조금씩 줄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몸이 우람한 만화나 무전 과현들은 사흘이 지난 단식으로 무척 쇠약해졌다. 머칠을 굶어도 여느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은 우녀와 합두 두 여자였고 그 다음으로 인담이었다.

새로 온 선비 출신의 불이행자도 눈에 해골 기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기껏해야 7일동안의 빈 속인데 이 지경이었다.

무욕도의 열사람이 7일동안 샘물만 하루 반되가량 마시면서 좌선정진에 들어갔다

웬놈이 그가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임춘의 시를 제것이라 읊어 대는가 "지금 네가 임춘의 후신을 만나고 있느니라" 꿈을 꾸는 인담의 가슴팍에 땀이…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3月 / 23, 28, 30 4月 / 4, 6, 11, 13, 18, 20, 26, 27

대만 5日 ₩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3月 / 22, 29 4月 / 5, 12, 19, 26
스리랑카 6日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덤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3月 / 24, 31 4月 / 7, 14, 21, 28
미얀마 · 태국 8日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3月 / 24, 31 4月 / 7, 14, 21, 28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 · 최상의 서비스 · 최대의 기쁨-

방콕 · 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3月 / 22, 25, 26, 29 4月 / 1, 2, 5, 8, 9, 12, 15, 16, 19, 22, 23, 26, 29, 30
방콕 · 푸켓 5日 ₩ 649,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3月 / 25 4月 / 5, 12, 19, 26
동남아 3국 5日 ₩ 590,000	서울-쿠알라룸푸르(1박)-싱가폴(2박)-바탐(관광)-기내(1박) 3月 / 22, 29 4月 / 5, 12, 19, 26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3月 / 28 4月 / 4, 11, 18, 25
하와이 5日 ₩ 649,000(일급) ₩ 699,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3月 / 22, 23, 25, 29, 30 4月 / 1, 2, 5, 6, 8, 9, 12, 13, 15, 16, 19, 20, 22, 23, 26, 27, 29, 30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서울-동경(2박)-하꼬네(1박)-서울 3月 / 23, 30 4月 / 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3月 / 23, 30 4月 / 4, 6, 11, 13, 18, 20, 25, 27
사이판 4日 ₩ 549,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3月 / 23, 26, 30 4月 / 2, 6, 9, 13, 16, 20, 23, 27, 30
괌 4日 ₩ 549,000	서울-괌(3박)-서울 3月 / 23, 26, 30 4月 / 2, 5, 9, 12, 16, 19, 23, 26, 30
호주 · 뉴질랜드 8日 ₩ 1,270,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3月 / 23 4月 / 1, 2, 4, 6, 8, 9, 11, 15, 16, 18, 20, 22, 23, 25, 27, 29, 3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 · 파타야	5日	—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 ₩ 670,000
	5日	—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 649,000(일급) — ₩ 699,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日	— ₩ 860,000
	6日	— ₩ 89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매일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홍수속에서 지난 한해동안 간행돼 출판문화협회에 등록된 어린이관련 단행본 도서수만 4천3백60권. 하루평균 약 12권의 어린이도서가 시내서점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부모들은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수능시험으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무작정 아이들에게 책읽기만을 강요할 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만 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인 독서를 위해 책을 사고, 읽고, 읽은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이를 지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기술에 관한 것이 바로 독서지도다.

"부모 스스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독서 지도법"이라 말하는 동국대 황옥자교수(불교아동학과)는 "아이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선택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독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교수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어려서부터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들이 자타가 등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읽고 옛날이야기하듯이 들려주는 것도 정서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열린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자녀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것이 세련된 독서지도의 기술이라고 교육자들은 말한다.

우리몸이 고른 영양분의 섭취로 자라고 유지되듯이 어린이들도 특정부분에 편중된 독서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고른 독서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만 건강한 사고를 지닌 어린이로 성장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은〉



◇ 아들 진웅군과 동화를 읽으며 김선희보살은 모자의 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눈다.

'동화읽는 엄마' 모임 김선희 보살이 전하는 자녀독서법

자녀독서지도는 이렇게…

"아이와 같이 불서골라 서로 바꿔 읽고 독후감도 써요"

부모와 함께읽어야 '효과'

불교동화 정서순화 지름길

"아가야! 그래서 선재동자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단다"

아들 강진웅군(국교 4학년)이 태어나기전부터 불교동화를 읽으며 동화 읽어주기 태교를 했다는 김선희보살.

작년 6월부터 서울 노원지역의 '동화읽는 엄마'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 아이들의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를 연구하는 불자 어머니다.

다섯명의 어머니 회원이 모여 우리나라 작가와 동화에 대해 공부하고 동화비평서를 읽고 토론도 하는 '동화읽는 엄마' 모임에서 요즘 김보살은 참교육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선희보살의 독서지도법은 남다르다.

김보살은 진웅이의 손을 잡고 서점을 찾아 직접 책을 고르게 하고 또 김보살 자신도 책을 골라 함께 바꿔 읽으면서 진웅이가 스스로 좋은 책과 나쁜 책을 비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또 독서기록장을 마련 그날 읽은 책의 제목과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줘 독후감 등 작문실력의 향상도 꾀했다.

진웅이의 일주일 평균 독서량은 5권정도. 그 책을 모두 다 읽어본다는 김보살은 "진웅이와 읽은 책에 대해서 단순한 대화가 아닌 토론을 해요. 책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주변이야기들의 문제점을 토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속에서 진웅이가 느끼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알게되고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라고 말한다.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모두가 불자가족인 김선희보살은 아들 진웅이에게도 불교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불교적 정서가 담긴 동화책들을 먼저 읽도록 유도해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쌓게하고 그런 다음 거의 모두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서양 명작동화를 보게 했다.

불교동화 읽어주기로 태교…참교육 실천

이같은 김보살의 현명하고도 자연스러운 독서지도로 불교적 감성을 먼저 느끼고 접하게 된 진웅군은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법륜왕사 어린이법회에 나가 불법을 배우는 신심 돈독한 부처님의 꼬마제자가 되어 있다.

〈이은자 기자〉

만 화

法법 句구 經경

* 꽃의 장 *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연꽃의 향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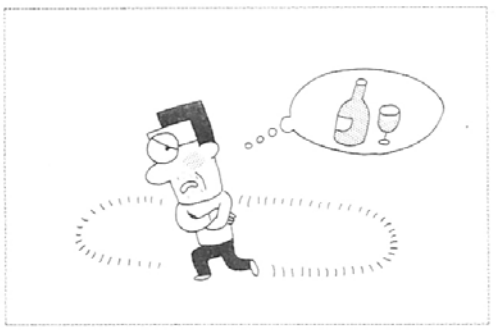
이 향 원



이른후 건강칼럼

<19>

불안



롤로 메이(Rollo May)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불안이다"라고 말한다. 불안은 미래에 자신에게 무엇인가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막연한 걱정을 말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 가령 시험을 친다고 하자. 시험을 쳐야하는 수험생이라면 일말의 불안이 있을 것이다. 시험을 잘쳐야겠다는 긴장은 혹시 내가 시험을 잘못 치게 될는지 모른다는 걱정이 지나쳐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때의 불안은 막연하지가 않다. 시험이라는 뚜렷한 유발요인이 있는 것이다.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불안은 가시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왜 불안하세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까"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라도 던져 보라.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뚜렷한 불안의 원인을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담고 있을 뿐 의식수준에서는 지각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불본행집경에는 이런 정신의학적 이론과 유사한 말씀이 실려 있다.

"열세가지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 속에 불안을 불러 일으킨다. 첫째 몸 말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깨끗하지 못할 때, 둘째로는 생활이 깨끗하지 못할때, 셋째 탐욕으로 심한 애욕에 빠졌을 때, 넷째 마음에 미움을 품을 때, 다섯째 침울하거나 둔중한 마음상태일 때, 여섯째 마음이 부동할 때, 일곱째 의혹에 쌓여 있을 때, 여덟째 남을 비난할 때, 아홉째 긴장할 때, 열번째 이득과 명성을 얻으려고 할때, 열한번째 게을러 정진하지 않을 때, 열두번째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할 때, 열세번째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공포를 마음 속에서 불러 일으킨다고 적고 있다.

불본행집경 "탐욕·미움등 13가지 더러움이 근원"

이 모든 마음의 상태가 곧 바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불안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마음의 누적이 쌓이고 난 다음에 불안이 일어나니 징작 불안을 경험할 땐 그 원인이 위에 적은 마음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치료라는 정신과의 치료는 이런 원인을 통찰시킴으써 환자가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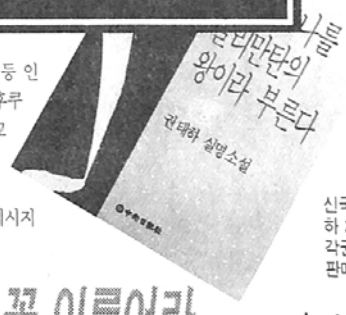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고승열전시리즈 10권 나왔다

윤청광씨 근현대 고승 궤적·가르침 소설로 정리

구산·탄허스님등 일대기 다룬 작품도 나올예정


용성스님 만공스님 만암스님 효봉스님 동산스님


경봉스님 금오스님 전강스님 고암스님 청담스님

근현대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일대기를 소설로 정리한 '고승열전 시리즈'(언어문화사) 1차분 10권이 완간됐다. 전쟁과 경제적 궁핍, 좌·우사상대립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사상적 힘이 되어주었던 큰스님들의 남달랐던 삶의 체적과 사상들이 윤청광씨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이 시리즈는 불교방송에 '고승열전'으로 방송돼 불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지은이 윤청광씨는 "큰스님들의 자취를 찾아 전국의 사찰을 수없이 돌면서 큰스님들의 삶과 지혜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업을 해나갔다"며 어렵사리 당시 큰스님을 모셨던 스님들을 찾아가면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으려는 바람에 낙심하며 돌아섰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이 나오면서는 각 사찰에서 보시용으로 다량구입하는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청담스님과 고암스님의 경우 불서로서는 드물게 초판 1만부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읽으면서 큰스님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승열전을 통해 알게 하려는 저자의 독특한 동화풍의 문체 덕분이다. 게다가 관사와 영장수를 하다가 승려가 된 효봉스님, 서슬이 시퍼런 때 대통령을 꾸짖던 동산스님, 종정을 지낸 뒤 다시 총무원장을 맡았던 청담스님 등 큰인물들의 행적이 독자들에게 감명을 준다.

92년 11월 첫선을 보인 고승열전시리즈는 만암스님 금오스님 만공스님 전강스님 고암스님 경봉스님 용성스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언어문화사는 계속해서 이 시리즈 2차분으로 구산스님 탄허스님 경허스님 한암스님 운허스님등의 일대기를 펴낼 계획이다.

고승열전 시리즈는 이기주의와 물욕에 찌든 현대인들을 맑은마음 찾기로 안내하고 있음은 물론 스님들의 행적을 통해 근현대 한국불교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광출판부
2	알기쉬운 불교	편 성 부	불교방송
3	시작하는 마음	일 타	효 림
4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술몽쇄언	김 대 현	을유문화사
7	부처님 말씀	성 열	법 등
8	한산과 습득	고 은	진 음
9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10	불교상식 백과	홍사성 외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원효선사 '십문화쟁론'

원효연구가들은 한결같이 원효사상이 신라인의 사상통일과 통일위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서 그의 사상체계를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화쟁사상(和諍思想)을 들고 있다.

'화쟁'이란 쟁론(諍論)을 화합(和合)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여러 학설들중에 어느 하나를 고집한다거나 또는 버리거나 함이 없이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서로 다른 학설 사이의 모순·대립을 해소시켜 하나로 귀결시키는 통합(統合)의 논리를 지칭한다. 〈십문화쟁론〉은 이러한 화쟁의 논리를 불교사상적 관점에 적용하여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변을 10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한 것에 다름아니다. 전체 2권 중에 상권의 일부만이 원문으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의 다른 저술들을 함께 참조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선사는 〈열반경 종요〉에서 "뭇 경전의 부분적인 면을 통합하여 온갖 물줄기를 한 맛의 진리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불교의 지극히 공변된 뜻을 열어 보는 사상가들의 서로 다른 쟁론들을 화회(和會)시킨다"고 설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저술 〈금강삼매경론〉에서도 "큰 바다에는 일체의 뭇 강물줄기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불교교리상의 여러 쟁론들, 즉 대승(大乘)과 소승(小乘), 성(性)과 상(相)등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제반교의를 다 융화하여 일불승(一佛乘)에로 귀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회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또 모든 것을 섞어서 하나로 얼버무려 획일화하는 것도 아닌 동시에 본질적 의미를 살려 여러 가치의 통섭(通涉)을 꾀하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철리(哲理)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십문화쟁론〉의 중심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화쟁정신의 핵심이 무조건적인 관용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자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고 공구하는 비판정신이 결여된 관용은 각자의 차이점을 일시적으로 호도하는 야합(野合)을 가져 올 뿐, 그것이 진정한 합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선사는 거문고 줄(絃)에 비유하여,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여 긴장됨이 없으면 제소리가 나지 않으며, 모든 줄이 각기 제소리를 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훌륭한 화음(和音)을 가져오게 됨을 권하고 있다.



강 광 식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화합의 길' 대승차원서 제시

무한경쟁 사회의 구세철학

요컨대 화생사상의 정신적 요체는, 철저한 비판정신에 바탕을 둔 자기성찰과 개성의 특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긍정적 관용정신과의 묘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화쟁의 정신은 다원적 이해관계 속에 무한경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매우 소중한 구세의 철학으로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지방화'를 지향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시대철학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란 한국화에 철저를 기하되 한국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대승적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일찍이 화쟁사상은 일깨워준 바 있기 때문이다.

〈불교천자문〉 출간

반야심경등 경전 8종서 한자추려

寫經 교본도…쓰기·단어이해 등 도움




덕진스님

〈불교천자문〉이 나왔다.

한문과 불교용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불교천자문〉은 자전편과 쓰기편 2권.

울산정토사 덕진스님이 펴낸 이 천자문은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아미타경' '부모은중경'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화엄경보현품'에 나오는 한자를 추려 1천90자로 구성됐다. 이들 여덟가지 경전을 이루는 한자는 총 1만9천8백자에 이른다. 그러나 중복되는 글자를 빼고 각각의 낱글자를 골라낸 것이 1천90자라는 것.

덕진스님은 이 1천90자를 '자전편'에서 낱자의 음과 훈을 각종 자전을 참고해 상세히 해설하고 각 글자들로 이뤄진 불교용어들로 2백단어 이상으로 묶어 설명했다. 따라서 자전편의 한자와 단어만 익히면 '예불문' 등 여덟종의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다.

또 쓰기편은 1천90자를 정자와 필기체로 나눴으며 권 글씨 교본의 형식으로 편집돼 쓰기공부에 도움을 준다. 낱글자들로 이뤄진 불교용어들로 배열되어 있어 글씨공부를 하며 용어의 뜻을 새길 수 있다. 글씨 교법은 박한숙씨의 필체다. 쓰기교본 하단은 용어의 해설이 실렸다.

〈불교천자문〉은 여덟종류의 경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 교재 역할과 사경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중교생 뿐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필수교본이 될 것이란 게 덕진스님의 설명.

〈불교천자문〉의 출판기념회 및 사경법회가 오는 29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태〉

'스님, 꽃필 날이…' 재출간준비 또 물의

지난해 11월 출판 – 폐기 – 사과광고 – 반박광고로 이어지며 물의를 빚었던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를 저자인 강헌정씨가 재출판을 준비하고 있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스님, 꽃필 날이…〉는 저자 자신을 성철스님이 사랑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 물의를 빚자 당시 이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폐기처분했다.

강씨는 〈불교세계〉 4월호 인터뷰에서 "결코 속된 감정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며 2권까지 집필, 곧 출판할 뜻을 밝혔다. 이미 몇몇 불서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출판계에서는 관심거리가 되는 내용이고 필자난에 시달리는 군소출판사에서 출판에 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제의 책

마을로 간 미륵

주강현 지음



미륵신앙이 불교사 내지는 우리민족의 변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늘 이야기되어 왔으나, 미륵신앙 전반을 폭넓게 본격적으로 파헤친 책은 없었다. 〈마을로 간 미륵〉(전3권 중 2권 펴냄)은 미륵과 관련된 사찰장승과 당간지주, 민간신앙 자료에 대해 폭넓게 조사, 연구해 미륵신앙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민중의 삶과 함께한 미륵답사기

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나아가 인문지리적 접근과 생동감있는 사진자료, 지도를 곁들여 기층불교문화와 민속신앙에 대한 답사서로서도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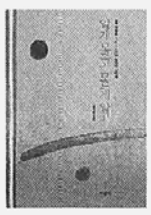
그동안 학계 연구는 미륵의 하치매몰불(下輜埋沒佛)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미륵이 땅에서 솟구쳐올라 출현하는 것만을 주목해왔다. 그러나 제주도의 미륵을 답사한 결과 미륵이 물에서도 올라오고 있음을 저자는 여러가지 실증을 들어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 책에서는 미륵이 민중들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대원사, 1권 7천원, 2권 7천8백원〉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본원경(동봉 옮김)=불교의 윤리와 자비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경전의 주된 사상은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옥의 갖가지 고통과 중생구제의 끝없는 서원을 설한 경전이다. 〈관음출판사, 6천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원의범 지음)=전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를 지낸 저자가 때에 따라 떠오른 짧막한 생각 1천7백가지를 묶었다.

'산 놈은 남을 먹어야 산다/ 사는 게 슬픈 까닭' '염화시중에 가섭은/ 꽃보고 웃지 않았다/ 빈 손 들어도 웃었다' 등 이 책의 단상들은 생각과 말의 미로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삶을 바로보는 지혜를 전해준다. 〈시공사, 6천원〉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김문길 지음)=일본의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예술의 원조가 임진왜란 당시 끌려간 우리나라 도공 등 예술가에 의해 이뤄졌으며, 일본의 국보가운데 다수가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불화 석탑 범종 등의 문화재라는 점을 현지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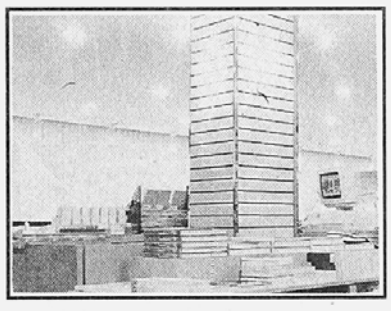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임진왜란은 영토침략 전쟁이라기보다는 당시 조선의 선진문화를 약탈하려는 문화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빼앗긴 우리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하고 있다. 〈혜안, 6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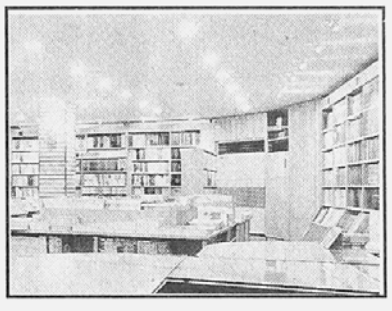
▲도선국사 풍수문답(정관도 해설)=우리나라 풍수의 비조 도선스님이 우리나라 산수와 지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저술한 〈도선국사 풍수문답〉의 해설서. 무감편(無憾篇)과 십조룡맥(十條通脈) 옥룡자 유산록(玉龍子遊山錄) 산수도(山水圖, 龍六圖)를 한권으로 묶었으며, 무감편은 원전필사본을 영인판으로 실었다. 〈지선당, 3만원〉

불을가득 · 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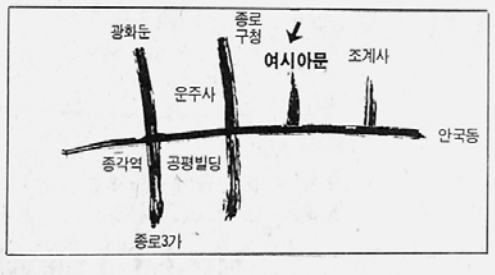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음악

부모은중경, 교성곡으로 만든다

광덕스님 詩에 박범훈교수 작곡…오는 6월경 공연

대형교성곡 '부모은중송'이 불광사(주지 지오)에 의해 만들어진다.



◇박범훈교수

광덕스님의 시에 박범훈교수(중앙대)가 곡을 붙힌 '부모은중송'은 현재 박교수에 의해 작곡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곡은 광덕스님이 〈부모은중경〉을 풀어 쓴 장편시를 가사로 박교수가 곡을 붙히고 있는데 곧 작곡이 완료될 전망이다.

박교수는 2장으로 구분된 장편시를 압축해 2악장의 합창곡으로 작곡중이며 뒷부분과 편곡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회심곡'의 정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 낼 이 곡의 공연시간은 약 1시간이다. 국악 관현악 반주에 합창중심으로 이뤄진 곡이지만 피아노만의 반주로도 부를 수 있다는게 박교수의 설명. 또 연주는 합창과 중창 독창을 적절히 배열해 입체감을 살리게 되며 군무나 독무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공연기획에 무용이 곁들여 진다면 무용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교수는 덧붙혔다.

"현재는 작곡만 의뢰 받은 상태입니다. 곡이 마무리되면 불광사측이 공연 기획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교수는 92년 '보현행원송'의 작곡과 공연을 불광사로부터 일임 받아 교성곡 '보현행원송'을 작곡, 공연했으며 91년에는 불교방송과 함께 첫 불교 교성곡 '붓다'를 작곡 공연했었다.

박교수의 세번째 교성곡인 '부모은중송'은 효행을 강조하는 가사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린다는 측면에서 작곡과 연주가 기획될 전망이다.

작곡을 의뢰한 불광사(주지 지오)는 박교수에 의해 곡이 완성되는대로 6월경 공연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오스님은 "불광사 합창단 1백50명이 공연에 동참하게 되며 공연 관련업무를 위해 기획팀도 구성해 뒀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바라밀합창단 창단

울산불교교육원(원장 우룡)부설 바라밀 합창단이 창단됐다.

지난 12일과 17일 두차례의 오디션을 거쳐 단원 60명을 선발한 바라밀합창단은 2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음악공부와 연습을 한다. 합창단은 오는 5월말께 창단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명법사 찬불CD 나와

지난11일 평택서 공연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 합창단이 찬불가 모음 CD를 내고 축하공연을 지난 11일 오후7시 평택문화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CD취입기념 찬불가음성공양의 밤에서는 「일천강에 비치는 달」등이 공연됐다. 합창단이 취입한 CD에는 「삼귀의」「나의 연꽃」등 찬불가 20곡이 수록됐다.

불심시심 〈15〉

사물 밖에 여유

優遊超物外 (우유초물외) — 사물 밖 벗어난 유유한 놀음
自在度朝昏 (자재도조혼) — 자재로이 보내는 아침 저녁
足踏千山月 (족답천산월) — 천 산의 달 밟는 두 발
身隨萬里雲 (신수만리운) — 만 리의 구름 따르는 이한몸
本無人我見 (본무인아견) — 나 남이 없이 보는 본래의 소견이니
那有是非門 (다유시비문) — 옳고 그름 갈린 문 어찌 있겠나
鳥不含花至 (조불함화지) — 새가 꽃을 물어오지 않아도
春風空自芬 (춘풍공자분) — 봄 바람은 저절로 꽃다운 것을

이 시는 정관(靜觀)대사가 어느 스님에게 준 시이다. 모든 것이 자재로와 둘이 아닌 선지를 담고 있다. 모든 사물 밖에 유유히 자유롭다. 아침 저녁이 변함 없이 오고 가듯이 그저 자재로움이다. 내가 맞으려 하지 않는다 해서 오지 않는 아침 저녁이 아니다. 내가 자재롭듯이 그것도 오고 감의 시간적 연속이 다를 뿐 역시 자재로움이다. 이 자재로운 사물 안에서 나 또한 자재로이 있는 것이요. 아침 저녁이 교체되듯이 나 또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온갖 산에 비쳐지는 달은 달 그 자체로서 하나이다. 모든 달은 같다. 오늘 밝는 달 그림자는 내일의 그 달이고 또는 어제의 그 달이다. 어제와 오늘 또는 내일이라는 시간의 변화는 마치 뜬 구름의 오고감과 같은 것이니 이 시간에 따라 번해 가도 한 조각의 구름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구름과 나의 구별이 없듯이 사물에 대칭되는 나의 존재는 원래 둘이 아닌 하나이다. 나와 너라는 대칭적 구분을 짓는 짧은 소견이 용납될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 옳다 그르다 하여 가리는 시비의 갈림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불이의 법문이다.

봄의 울음으로 상징되는 새의 조잘거림이 잦아지면 봄은 찾아오고, 새의 울음이 악으면 꽃이 핀다. 그렇다 하여 새의 울음이 꽃을 물어온 것도 아니다. 새 울음 꽃 화사함이 서로서로 법체의 실상의 여실함일 뿐이다. 그러기에 서로의 함수적 연관이 없는 듯하면서도 봄으로 상징되는 자연사물의 모든 어울림으로 조화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자연질서의 조화로운 진리인 것이다. 이 시는 이러한 진여실상을 깨우치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미술

서세옥·송영방·이호신씨 작품 대영박물관 한국관 전시예정

송영방(동국대)교수와 서세옥(서울대)교수 이호신씨등의 작품이 영국 대영박물관 한국관에 전시된다. 김기창, 장우성, 송수남, 정탁영씨등과 관화가 서승원, 하동철, 윤명로씨, 작고한 작가 이상범 변관식, 박생관씨등의 작품도 대영박물관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97년 문을 열 대영박물관 한국관 전시작품을 모으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큐레이터 제인폰탈에 의해 알려졌다. '한국미술품이란 것을 누가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작품'에 선정 기준을 뒀다는 제인폰탈은 한국작품수집 과정에서 송영방, 이호신, 서세옥화백의 그림을 지목했던 것. 대영박물관 측은 이미 작품을 사들이고 있는 단계이며 이호신씨는 지난 14일 전시를 마친 작품중 '운주사 천불천탑공'을 내놓게 된다. 송교수는 이미 93년에 「산과 물과 구름」「장생」등 두작품을 대영박물관으로 보냈다.

또 서세옥교수도 92년에 1백20호 규모의 작품(군무)를 대영박물관 학예실장에게 넘겨 줬다.

향운스님 화엄세계 묵화로 표현

향운스님의 여섯번째 선화전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전시회가 다음달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역문화회관 1층과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달마야 문노니 어찌된 연고인고」등 10폭규모의 대형 수묵담채 작품과 소품들을 내놓는 이번 전시는 세상을 보는 출가수행자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미술계의 기대다. 향운스님은 78년부터 묵화를 시작, 84년 첫 개인전 이후 선지를 담은 그림들로 그간 다섯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금강경 특별전 개최

21일부터 부산국제문화센터

'95 미술의 해 기념 「금강경 특별전」이 오는 21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석경(石經) 원석 1점을 비롯, 금강경 32분 석경 원석 32점, 금강경 탁본 병풍 및 표구본 다수, 반야심경석경 원석 3장, 반야심경 탁본 병풍 및 다수가 선보인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일향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금강경 특별전」은 오는 21일 오후3시 전시장에서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개막돼, 29일까지 전시된다.

불미협 제2회 전시회

불교미술인협회(회장 전영화)의 두번째 전시회가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년 5월에 출범한 불미협의 이번 전시회에는 80여 회원중 50명이 작품을 내놓는다.

문학

禪다룬 시집두편 '주목'

삶에 녹아있는 불교정서를 표현

쥐똥나무울타리 / 나를 찾아 떠난 길

'화두' '탑을 돌며' 등 禪的 홀로서기



◇하종오시인

민중시와 서정시의 대표주자로 문단을 지켜왔던 두 시인이 불교의 정서와 사상에 심취,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줘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시집〈쥐똥나무 울타리〉를 낸 하종오씨와 〈나를 찾아 떠난 길〉을 펴낸 서정윤씨가 그들이다.

두 시인은 그간 보여 왔던 독특한 어법과 시색(詩色)을 한풀 꺽고 새로운 시세계로 몰입하는 과정에서 불교로의 회귀를 택했다는 점과 그동안 불교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들이 거의 같은 시점에 신작시집을 낸 것도 우연을 뛰어넘는 교감이 있는 듯하다.

하종오씨는 75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데뷔해 80년부터 '반시(反詩)' 동인활동을 하며 민중의 삶에 어린 애환을 노래해 문단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사월에서 오월로〉〈분단동이 아들하고 통일동이 아들하고〉등 시집과 굿시집, 시극집등을 왕성하게 쏟아 내던 하시인. 그러나 그는 한때 절필을 하고 강화도로 가 촌사람 생활도 했었다.

다시 재개한 활동 기간에 끈질기게 그의 시의식을 두드린 것은 강화도 시절의 생활과 불교적 정서로 용솟음 치는 감성이었다는게 하시인의 고백이다.

이번에 낸 〈쥐똥나무…〉에서 그는 '마음의 불' '심경' 시리즈 등으로 그의 불교적 감성을 우물물 처럼 길어 올리고 있다. "일부러 불교시를 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속에 녹아있던 정서가 불교적으로 순화되어 쏜아져 나온 것입니다."

하시인은 시의 텍스트라 강조하는 '유마경'을 비롯 '화엄경' '아함경' 등을 탐독했던 절은 시절이 지금의 회귀본능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무의식 속의 불교시 쓰기'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홀로서기〉1, 2, 3편으로 2백40만부라는 경이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한 시인 서정윤. 서시인 역시 스스로 '홀로서기 시인'에서 '그냥 시인 서정윤'으로 남고자 시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그 과정을 짧은 호흡으로 긴 감동을 이끌어내는 불교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변하고 싶다는 심경을 최근 펴낸시집 〈나를찾아 떠난 길〉의 서문을 통해 외치고 있다. "2년간 시로부터 떠나 있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라고.



◇서정윤시인

'그냥 서정윤시인으로 남기위한 홀로서기'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발산시킨 시집 〈나를찾아…〉는 총 4부로 나눠진다. 그중 제2부가 불교시들의 묶음이다. '소의 환상' '화두' '탑을 돌며'등의 작품은 시인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시인 자신을 찾아가는 고독한 여행의 이야기들.

〈홀로서기〉가 인간의 사랑과 초월을 얘기 했다면 〈나를찾아…〉는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찾기 여행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만큼 서시인은 자신의 감성과 시의 질료, 궁극적으로는 '시를 쓰는 자신과 자신이 쓴 시' 자체까지도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다. 물론 그 새로운 세계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불교의 세계다.

〈태〉



◇문수사 중창·노인돕기에 출품된 황성민작 '진공묘유'

문수사, 중창불사·불우노인돕기 서화전

22~27일, 세종문화회관

삼각산 문수사(주지 혜정)는 요사·법당확장불사 및 불우노인돕기 기금마련 서화초대전을 22일부터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인 황성민씨의 「반야심경」등 작품과 서화계 대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초대전에 작품을 내놓는 황성민씨의 작품중에는 10폭짜리 금강경도 포함된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문수사는 고려 예종2년(1109)에 탄연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문수굴이 유명하다. 문수사는 6. 25이후 거듭 중창불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요사채와 법당의 확장불사를 위해 마련됐다. 문수사는 또 이 전시기금으로 불우노인들을 위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무왕릉 성역사업 차질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사적 제158호인 문무대왕 수중릉주변 성역화사업이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재관리국은 86년 문무대왕 수중릉주변 정비사업 5개년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백지화한 뒤 93년에 다시 계획을 마련했다.

묵연스님 첫시집 발간

'너를 위하여 나를 버리듯'



묵연스님이 첫 시집〈너를 위하여 나를 버리듯〉을 냈다.(서울출판刊)

'빈어깨' 등 8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시집은 스님이 수행의 일상에서 얻은 단상들을 허무, 구도의지등으로 표면화시킨 작품들로 묶여져 있다.

문체부, '한국의 문화' 영문안내서 발간

문화체육부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영문 안내서 「KOREAN CULTURE」를 펴냈다.

이경희씨의 사진과 해설로 이뤄진 3백20페이지 분량의 이 안내서는 전면 칼라판으로 구성됐다.

수미산 여행사

전화 代(02) 720-3241

태국·미얀마 (7박 8일)
W 140만원
- 4월 6일~13일
- 5월 8일~15일
- 6월 3일~10일
- 7월 3일~10일
- 8월 1일~ 8일
- 9월11일~18일
- 10월 9일~16일

싱가폴·보르부둘 (5박 6일)
W 90만원
- 4월13일~18일
- 5월11일~16일
- 6월 8일~13일
- 7월13일~18일
- 8월10일~15일
- 9월14일~19일
- 10월12일~17일

태국사찰 순례 (5박 6일)
W 60만원
- 3월25일~30일
- 4월24일~29일
- 5월26일~31일
- 6월23일~28일
- 7월22일~27일
- 8월21일~26일
- 9월19일~24일
- 10월20일~25일

동남아·인도·중국·일본 성지순례

태국·미얀마사찰순례(7박8일)
동참금:140만원

지역	일정진행내역
서울	10:30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앞 집결
방콕	서울 출발, 방콕 돈무앙 공항 경유
양곤	미얀마 양곤 도착
양곤	양곤 출발. 파간 도착후 유적지 순례
파간	(아난다사원, 탓빈유사원, 쉐지곤파고다, 미누하사원 틸 로만로사원 등)
파간	만달레이 도착후 성지 순례
만달레이	(쿠소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 힐 등 불교유적)
만달레이	만달레이 출발, 양곤 도착후 폐구 유적지 순례
양곤	(쉐달리옹, 짜익뿐 등 빠고의 유적지) 양곤 귀환 후 휴식
양곤	양곤 시내관광(쉐다곤대탑, 까바에사원 등)양곤 출발
방콕	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방콕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등)
방콕	오전:태국 민속촌 '로즈가든'관람 오후:방콕 시내관광(황금불사원 등)
방콕	방콕 출발
서울	서울 김포공항 도착후 해산

싱가폴·보르부둘사찰순례(5박6일)
동참금:90만원

지역	일정진행내역
서울	김포공항 제1(구)청사 2층 신한은행 앞 집합
싱가폴	서울출발 싱가폴 도착후 호텔 투숙
싱가폴	싱가폴 출발 자키르타 경유
싱가폴	족자카르타 도착
족자카르타	보르부둘 사원(세계7대 불가사이) 순례
족자카르타	족자카르타 출발
발리	발리 도착후 해변에서 휴식
발리	힌두사원, 원숭이 사원 등 관광
싱가폴	발리 출발
싱가폴	싱가폴 도착후 호텔 투숙
싱가폴	국립식물원. 머라이언 공원. 쥬롱새 공원. 훼버산장. 센토사섬 등 시내관광
싱가폴	싱가폴 출발
서울	서울 도착후 해산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일본 5일	오사까-나리-교또	95만원
일본 6일	동경-나리-교또-오사카	135만원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만원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르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만원
(7박8일)태국,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디푸리-허바리나-캔디-방콕	125만원

태국사찰순례(5박6일)
동참금:60만원

지역	일정진행내역
서울	김포공항 신청사(2청사)2층 외환은행앞 모임
방콕	서울출발. 방콕 도착후 호텔 투숙
방콕	파타이로 이동
파타야	안쌍와리랑사원 참배후 투숙
파타야	농눅빌리지에서 민속쇼 코끼리쇼 관람. 정원산책. 산호섬 일주 및 휴양
파타야	방콕으로 이동후 시내관광
방콕	(수상시장. 새벽의 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사 등)
방콕	아유타야로 이동
아유타야	아유타야 옛 고적지 참배후 방콕으로 귀환
방콕	방콕 출발
서울	서울 도착후 해산

※중국 여행 문의 받습니다.

국외 여행업 등록 제358호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 (02)720-3241~7 / 팩스 : (02)720-3248

화제의 프로

btn '선만화'



노스님·동자 30초 선문답…불자호응
잠깐본 화면에 30분씩 곰곰생각케

동자:스님 왜 거북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까요?

스님:평소에 말많은 거북이가 나뭇가지를 물고날다 그사이를 못참고 입을 열다 떨어졌단다.

동자:…,

스님:지나치게 말이많은 사람은 언젠가 이런화를 입게 된단다.

불교텔레비전의 가장짧은 프로그램 '선만화'는 30초짜리 프로지만 30분을 생각케한다.

매편마다 동자스님과 노스님의 선문답을 통해 퍼뜩이는 지혜를 선사해준다.

5~6컷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하루 4회씩 선보이고있다.

일상의 분주함을 깨뜨리고 차한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게하는 선만화는 불교텔레비전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이다.

현재 30여편이 제작되어 매일 1편씩 내보내는 선만화는 첨단 컴퓨터 기법으로 처리하여 신선함과 광고중간 중간에 삽입하여 불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있다.

BBS '오늘을 이끄는 불교'

오늘을 이끄는 불교의 저력은 무엇인가.

매주 한가지의 주제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교의 맥박을 찾아 보는 시간이 불교방송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매일 밤 11시 5분~20분)다. 이 프로에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을 거나 문학과 음악, 미술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는 불교의 묘을 찾아 보는 시간에 청취자의 호감이 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프로가 선정되는 주제마다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한다는 것도 프로의 고도화를 가능케 하는 한 요인이다.

부처님 말씀 경제 등 주제별로 해석
전문가 초청 생활속 불법현장 밝혀

기울이는 까닭은 부처님의 말씀들이 경제, 정치, 과학, 수학, 음악, 문학, 지리학 등에까지 두루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특징 때문.

대웅전이 있는 곳 주변에 어김없이 약수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때문인가를 밝힌다.

프로그램 담당 PD인 박상필 씨는 "전문지식을 쉽고 이해시키며 핵심을 도출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취자들이 전화를 해서 주제와 출연자까지 요구하는 정도"라며 즐거운 비명.

네팔 룸비니에 한국사찰 건립

대각회서…8월 중순경 착공
대웅전·강원등 8백평 규모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 처음으로 한국사찰이 건립된다.

대한불교 대각회 도문스님(대성사 조실)은 지난 10일 서울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룸비니 개발계획 부지내 사원구역에 8월15일경 한국사찰을 건립하는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도문스님은 "용성스님의 10유훈 가운데 6번째인 '부처님 4대성지를 잘 가꾸라'는 뜻을 받들어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건립키로 했다"며 "지난달 27일 네팔 교육문화부 소속인 룸비니 개발위원회(LDT)와 사찰건립을 위한 임대차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된 룸비니개발계획 사원구역은 LDT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성역화하기위해 세계불교국가를 상대로 개방한 지역으로 한국사찰건립허가는 일본, 중국, 태국에 이어 19번째다.

룸비니에 건립될 한국사찰은 한국전통 사찰형식을 적용, 만다라형을 도입한 건물배치와 한국전통 경관을 재현하며 현대적 기능과 기술을 반영하게 된다. 기본 설계에 의하면 대웅전(73.7평), 설법전(128.9평), 루문(19.1평), 선원(63.6평), 강원(63.6평), 스님용 요사(70평), 신도용 요사(70평), 종각(10.9평), 고루(10.9평), 회랑(310평), 정문(15.2평), 측문(9.1평)등 총 8백45평의 전각이 건립된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동산에 한국사찰 건립을 위해 도문스님이 현지관계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다.

이번 룸비니 한국사찰 건립은 도문스님이 9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세계불교도우의회(WFB)총회에 참석,네팔대표였던 록다 산씨(LDT위원장)를 만나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도문스님은 "룸비니에 건립되는 한국사찰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해 불교도가 해야 될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각회는 한국사찰 건립 불사를 원만하게 추진키위해 법신스님을 룸비니 현지로 파견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방송위, 佛放에 "경고"

총무원, 조속수습 관련자 문책 요청

불교방송이 지난 16일 방송위원회로부터 2월24일 성명서 방송과 관련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이날 불교방송측 관계자를 불러 성명서 방송경위를 듣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앞서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9일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에게 공문을 보내 "잘못된 방송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사과, 문책을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조계종 종회 방송대책소위는 지난 11일 결의문을, 전승련은 14일 관련자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총무원및 불교방송이사회는 참회하라고 밝혔다.

불교방송은 지난 10일 김태호사장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데이어 14, 15일 양일간 대책회의를 갖고 수습책을 숙의했다.

또 불교방송 출연및 진행자 스님들도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원칙적으로 방송출연을 금한다며 프로 담당자들이 '교섭될때까지만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원융종 한혜붕 스님 종정취임

오는 26일 캐피탈호텔서

대한불교 원융종(총무원장 배일공)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제4대 한혜붕종정 취임식을 봉행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월봉종정의 열반으로 총무원장이 대행해오던 종정에 한혜붕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현재 상주 연화사에 주석하고 있는 한혜붕스님은 세수 70세로 54년 백양사에서 포암선사를 은사로 득도, 93년 원융종 종회의장을 역임했다.

광복 50년기념법회
여래종, 충주서 내달 2일

여래종(총두원장 김법우스님)은 4월 2일 12시 충주 조정지댐 중앙탑에서 '광복 50주년 세계화 및 국가발전기원 대법회'를 거행한다.

방생법회도 함께 봉행하는 이번 법회를 앞두고 총무원장 법우스님은 "3천만 민족에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여 우리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천태종 금강사 기공식

천태종 광주 금강사(주지 량거광)는 지난 11일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사 기공식을 거행했다.

호국용마사 장병위문
태고종, 지난 19일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은 지난 19일 호국 용마사를 방문하고 호국관에서 간부불자 및 장병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안녕기원 및 불자사병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방송가 단신

대구·광주설명회 연기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극장에서 1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tn설명회및 2차주식 공모에 대한 홍보회를 개최했다. 또 28, 29일로 예정된 대구·광주설명회는 지역사정상 4월초로 연기됐다.

'리틀붓다' 비디오 출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붓다'가 5월 드림박스에 의해 비디오로 출시된다.

인도의카스트제도에 반발하여 불교로 개종한 산적여왕 폴란데비를 다룬 '밴디트퀸'도 국도극장을 비롯 서울 5개극장에서 5주간 1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6월 비디오로 출시된다.

주간편성 한시 축소

불교텔레비전은 주간기본편성안을 3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축소하여 시행한다.

개편되는 프로는 당신의 취미, 초점32, 건강여의주, 영화실탐방, 강변정담, 불자예절 btn통서남북이 중단되고 경전공부, 심장법사현장이 축소조정된다.

중국 부처님 치아사리 버마에 대여

해외통신

중국정부는 미얀마정부가 부처님 치아사리의 대여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락했다고 지난 1월 1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붕총리는 미얀마 방문기간 중에 1996년 사리를 상환하겠다는 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45일간의 운반 행렬에 수십만명의 버마 불자들이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배중에 1억8천만 크얏(2조 3천 2백억원 상당)의 기부금 및 수천점의 보석류가 모금되어 사리의 모형을 모실 탑을 짓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이 보도는 전한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의 사리 친견의 댓가로 50만 달러를 제공했다.

평화위한 종교간 행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1994년 12월 4~8일 2차대전 종식 50주년 기념으로 '종교간 평화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를 필두로 '평화와 생명을 위한 종교간행진 1995'가 시작되어 1995년 8월 6~9일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체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리스,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인디아, 말레이지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총 15개국을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 행렬이 캄보디아를 통과할 때 캄보디아의 간디라 불리는 마하 고사난다 스님이 이끄는 제4차 담마예트라(진리의 순례)와 합류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포교는 친절에서부터

스님이나 종무원들은 불교를 대표하는 얼굴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들의 언행은 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는 이들의 한마디가 불교의 전체적 인상을 좌우할 수도 있다.

얼마전 지방 E사에 문의차 전화를 건 일이 있다. 전화속 종무원은 반말과 퉁명스런 어조로 일관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부산행 열차에서 있었던 일이다. 객실 통로까지 승객들이 꽉 들어찬 가운에 두 비구니스님과 남자승객 두 명이 나누는 얘기가 들려왔다.

"스님 송광사 보물 아직도 못찾았지요? 감히 절에 있는 성보를 훔쳐가다니 어떤 놈들인지 참…"안타까워 하는 중년신사의 질문과 "죄송합니다. 하지만 곧 찾게 되겠지요"라는 스님의 답변.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불교신자라는 승객의 여러가지 질문과 스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도난된 성보를 걱정하는 승객과 "미안하다"며 어쩔줄 몰라하는 스님의 태도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다.

송광사 스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불교인의 한사람으로서 절실한 책임을 느낀 대답으로 들려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잡아함 월유경에 "마땅히 달처럼 부드럽게 살고, 겸손하게 마음을 단속하고,태도를 바르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젠 불교도 국제화시대에 있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다 성실한 서비스(?)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이들을 부처님 품에 안고 그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교는 훌륭한 법문에서 보다 친절한 말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을 퉁명스러웠던 E사의 종무원에게 전해주고 싶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부처님께 바칩니다' 배워

우리들의 찬불가

(19일 12:25~12:30) 변규백 작곡 조용국 작시의 '부처님께 바칩니다'를 배운다.

가수 남궁옥분과 시명스님이 진행.

차회석군 투병모습 소개

자비의 천수천안

(21일 10:10~12:00) 16세때 바이러스뇌염으로 의식불명되어 누워서 지내는 차회석군.

아버지는 한강하류에서 실뱀장어 잡이로 생계와 병원비를 충당하지만 역부족이다.

회석군의 투병모습을 소개한다.

신흥사팀 3연승도전

퀴즈특급 이뭐꼬?

(24일 11:10~12:00) 꾸러기 카메라를 통해 친숙해진 개그맨 김종국씨와 톡톡튀는 재치있는 여자 강문희씨가 새롭게 진행한다.

3연승을 향해 돌진하는 경기도 화성 신흥사팀과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팀이 한판승부를 펼친다.

김희조씨 찬불가 인연

나의삶 나의불교

(25일 11:10~12:00) 찬불가 작곡가 김희조씨. 김희조씨가 찬불가 작곡자로 태어나기까지 기가막힌 사연과 불교와의 인연, 노력이 있었는데…

-BBS-

베스트세븐 영화제 마련

영화음악실

(20일 22:05~22:55) 영화가 탄생한지 1백년. 영화음악실은 특집 베스트세븐 영화제를 마련한다. "레닌그라드의 카우보이"를 비롯한 불후의 명음악을 감상한다. 또 멕시코의 휴양도시 에스콘디노에서 펼쳐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그룹 '산타노'가 들려주는 삼바리듬과 함께 감상한다.

홍미경씨 그림포교 소개

피안을 향하여

(23일 14:10~14:45) 호작실이란 화실을 운영하며 밝게 웃으며 삽시다 운동을 펼치는 홍미경씨.

엽서크기의 켄트지에 주황색 크레용으로 비로자나불을 그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녀는 불법광명으로 밝아지기를 늘 염원한다.

김혜성 시인의 '봄날' 감상

가슴에 남는 시

(25일 18:15~28:20) 시인 김혜성씨의 봄냄새나는 풋풋한 시〈봄날〉을 감상한다.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증생제도에 노력하시는 스님의 고귀한 뜻에 두손 모아 합장 향배 올립니다. 스님의 높은 원력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파일 현수막은 옥외 설치된 장엄물로써 많은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가람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4도 찰라의 화려한 단청문양 현수막을 전국민적 축제에 장엄물로서 사용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작하여 다년간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가람기획과 더욱더 알찬 초파일이 되도록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처님 제자됨을 기뻐하며 오직 불교일만 고집하는 "가람"에서는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이번 4·8행사품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오며, 스님의 자비공덕이 온누리에 떨칠 수 있도록 오체투지 합장드립니다.

봉 불기2539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 축

◉ 봉축현수막 : 6m(4만원), 8m(5만원), 10m(6만원)

※전화로 주문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연락처 : (02)720-5121, 팩스 732-3769(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201호)

가 람 기 획 代表 이 주 영 合掌



대원회·재가회의·대불청등 5곳 전국 순회법회 준비

"법의 향기 대중과 함께 호흡"

"대중불교 전국순회법회-주제 맑고 향기롭게 한정섭법사 설법"

지난해 7월 말 읍내 사거리에 걸린 순회법회 프랭카드를 본 김거남씨(40, 농부)는 저녁을 서둘러 먹고 어머니와 아내와 같이 영월읍 농협 강당으로 달려가 한정섭법사의 열강을 들었다. (사) 한국불교 대원회는 오는 7월 또다시 경상남북도에서 제6차 전국순회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 등도 전국 대중과 호흡하는 전국 순회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93년 충청도 21개 지역에서 14일간 6천5백명에게 감로법문을 들려준 대원회는 지난 해 경기·강원 23개 시·군·읍의 7천여명에게 법회를 열어 주었다.

포교신행분과위원회가 주축이 될 한국불교 재가회의의 전국순회법회는 새 불자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기타성같은 재가회의 회원들이 강사가 되어 개최될 순회법회는 불교의 사회화와 재가불자의 위상 확립이라는 차원으로 실시될 예정.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역시 자체 연구위원들을 활용한 순회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부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전개될 대한불교청년회 전국순회법회는 실시를 앞두고 사전 기초작업을 마쳐논 상태. 서울, 경남 동·서부, 광주·전주 등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 청년회와 연계해 순회법회를 실시하게 된다. 대불청 본부에서는 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에서는 법회와 함께 문화행사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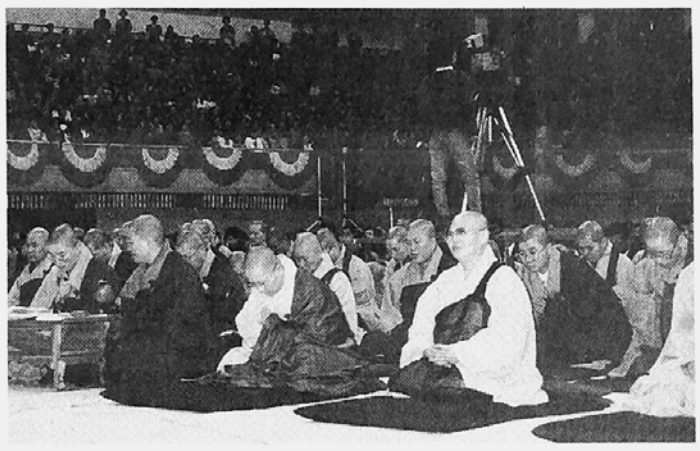
한편 대불련도 처음으로 오는 25일부터 인천지부를 시작으로 '새내기 불교학당'을 개설, 전국순회교육사업을 전개한다.

불교대중화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같은 순회법회는 법문을 좀처럼 접하기 힘든 농촌과 산골 등 오지의 지역민들에게 직접 법문을 듣게 함으로써 환희심을 내게 해 불심을 돋우는 계기로 환영받고 있다. 또한 지역 사암연합회 및 청년회를 연계, 지역 불심을 묶는 단합의 자리로도 이용되고 있다.

지난 60년대 말 조계종 전국 신도회가 대형버스를 동원해 전국을 누비며 처음으로 시도한 전국순회법회는 당시 '움직이는 포교당'으로 불리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법회로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았다. 동국대 석림회 역시 전국순회법회를 개최했으나 그 맥이 끊겼다가 수년전 대원회에 의해 다시 부활됐다.

TV 등 영상을 이용한 매체 포교와는 달리, 법사와 청중이 한몸이 되어 함께 호흡할수 있는 순회법회는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는 올해 특히 확산되고 있어 포교의 대중화의 중요한 견인차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숙 기자〉



◇지난 12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 '광복 50주년기념 대구·경북 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에 1만불자가 동참했다.

통도사 호법도서원 불서기증법회

불서읽기를 통한 문서 포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통도사 가촌 문서포교도량 호법도서원(지도법사 효신)이 다양한 불서확보를 위한 도서준비기도를 오는 5월 2일과 8일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실시하고, 기도 동참 및 도서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0523)84-4008

실천불교학교 개강

파주 보광사 '실천불교학교(학장 효림스님)'가 지난 8일 문을 열고 불자들의 올바른 불교실천을 위한 강의를 시작했다.

1백50명 불자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문을 연 실천불교학교는 '어떻게 행복을 창조할 것인가'·'인생의 비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등의 주제로 불교교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할수 있는 불교적 삶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량석, 발우공양 등 불교의례실습을 통해 수행생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돼 있는 실천불교학교는 오는 5월까지 3개월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조계종 호법국장회의

전국 20여스님 참가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사회·포교국장회의에 이어 호법국장회의가 지난13일 혜창 호법부장 정념 호법국장스님과 전국 교구의 20여 호법국장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호법국장스님들은 확대된 교구행정협의위에서 호법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교구 호법국 활동강화와 총무원호법부와의 결합력을 강조했다.

수계산림·정대불사등 전국서 봉행
새봄맞이 불심정진 "활짝"

을해년 새봄을 맞아 전국 각 사찰에서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비롯 정대불사 등 '3월(음력) 불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정대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겨진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 도는 전통적인 불교의식으로 경판을 머리에 이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발원의 표시.

해인사(주지 지관스님)는 4월 8일·9일 양일간 민족의 대동단결과 화합,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35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주지 목산스님)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또한 계룡산 자광사(주지 원행스님)는 4월 6일 정대불사, 보살계 수계법회와 함께 대법당 감로탱화 조성점안식을 거행하고 5월 23일까지 탑돌이 기도 등을 봉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쌍계사, 수덕사, 은해사, 범어사, 제주불교협의회 등 전국 유명사찰과 불교단체들이 '3월불사'를 계획하고 있어 불자들의 신심을 한껏 드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불사' 행사계획

사찰명	행사명	일자	전화번호
해인사	제35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4. 8~4. 9	(0599)31-1001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	4. 4~4. 6	(0523)82-7182
쌍계사	보살계·정대불사·육조봉전회	4. 4~4. 6	(0595)83-1901
수덕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4. 6	(0458)37-6565
은해사	3월 보살계	3. 31~4. 1	(0563)35-3318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4. 12~4. 14	(051)508-3122
봉선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3. 25	(0346)68-1958
자광사	정대불사·보살계·탑돌이기도	4. 6~5. 23	(042)822-6472
금산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4. 4	(0658)43-4442
해운정사	보살계 수계법회	4. 20	(051)746-2256
제주불교협의회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4. 29	(064)22-2829

문화재정책 세미나

기획실, 성보관리 논의

지난 13일 본사 지하다원 녹수청산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지명) 주최로 '종단의 문화재 정책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화재연구소 에능민속연구실장 박상국 문화재전문위원이 발제자로 참석, △성보의 실태파악 △도난및 화재방지 대책 수립 △성보보존법 등 관련법규 정비 및 성보관리위원회 활성화 △성보의 보존관리를 위해 총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주사 제1차 포교국장연수 취재기

"통계과 신설…비구니·재가와도 정보 나눠야"

한국불교의 21세기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포교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해 일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전국 본말사 포교국장스님들의 첫만남이 지난 9, 10일 법주사에서 이루어졌다.

스님들은 이번 '제1차 조계종 포교국장단 연수회'에서 안정된 포교사업전개를 위해 먼저 제도적으로 포교국장의 일기를 보장해 일회적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책임 부여·포교원 후원하에 사암연합회 등을 이용한 지역적 포교운동 전개·가족,청소년,어린이법회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사찰단위 신행혁신운동 전개를 강조했다. 재적사찰제와 신도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별, 행정구역별 분리 등록·교적부 작성을 통한 통계자료 작성·가족수용을 위한 연결장치 마련과 조계종의 자체분석자료의 빈약함을 개선키위해 포교활동 보고서를 제출, 포교원에 통계과를 신설하고 객관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포교활동의 밑거름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포교활성화를 위해 포교일선에서 활동중인 비구니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동참을 통한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포교의 현대화를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포교원장 정락스님의 '한국사회 종교현황과 포교의 과제', 현응스님의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강의가 진행됐으며, 얼마남지 않은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스님들은 김병준교수(국민대)의 '한국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함께 광명시에서 도심포교당 금강정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홍스님의 '포교당 운영사례발표'가 있었다. 〈법즈사=이은자 기자〉

호국영령대법회 1만불자 동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대행스님 초청

대법당 기공식도 거행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스님)이 주최한 '광복 50주년 기념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가 지난 12일 오후 2시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보훈가족의 좻불점화로 시작된 대법회는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와 추념사, 축사, 법어 등으로 이어졌다.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님 법을 충실히 따라 현실을 바르게 살며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호국영령들에 대한 보답이요, 불자들의 바른 도리일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날 대법회는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한마음선원 각 지원 스님·신도, 지역기관장 및 각 단체장과 지역민 1만여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워 성황을 이뤘다.

대구지원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 수송구 중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총 연면적 920평)의 법당, 요사채, 강당등을 고루 갖춘 대법당의 기공식을 가졌다.

출가·열반절 기념 本紙문화강좌 성료

출가·열반절기념 제1회 현대불교문화강좌가 지난 10일과 14일 오후 6시 30분 불교문화회관 지하 녹수청산에서 열렸다.

각각 1백여명이 참가한 이 강연에서 정락스님(10일)이 '위대한 출가, 위대한 깨달음'을, 고은 시인(14일)은 '눈뜨기, 마음열기'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 요지 본지 20호 7면 참조).

한편, 고은 시인의 강연은 열반절인 지난 15일 밤 10시 55분부터 50분간 불교방송 특별법문 "절대 평화로서의 열반"시간에 방송됐다.

법당기금마련 법회

혜광맹인불자회, 26일

혜광맹인불자회(지도법사 원상)가 오는 26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6주년 기념법회및 법당마련 자선공연을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시각장애불자들이 점자경전독송과 찬불가를 노래하고 불자연예인들의 자선공연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당 잔치를 펼칠 계획이다.

혜광맹인불자회는 이번 자선공연에서 모금된 성금전액을 맹인불자들을 위한 전세법당마련에 쓸 계획이다.

부산 청년회 활동 활발

세미나·이사회등 개최

부산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상대)는 지난1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현대불교에 있어서 청년불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립지회의 박상언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곽만연교수(동아대)의 '불자세대간의 신앙의 차이와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임전 대각지회장의 '불청포교 및 회원 연수교육에 관한 방안', 장암 부불청 수석부회장의 '불청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이상번 대불청회장의 '불청조직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건국 부불청운영위원의 '불청의 사회적조직에 관하여'에 대한 발표등 청년회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이 심도있게 제시됐다. 아울러 부불청은 지난14일 정기 이사회를 갖고 전도영 외무 부회장을 선출하고, 회비 수납체제의 조정과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의 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불청은 이사회에서 중부 불교청년회 창립기념법회와 체육대회를 오는 16일 오전10시 부산 중앙중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결속다짐 대법회

불교청년회 대전지구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지구(회장 백승훈)는 지난 15일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무진장스님을 법사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충남 도지사 및 대전시장을 역임한 홍선기, 대불청 중앙회장 이상번씨등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법회는 5년째 충남·대전으로 양분돼 운영되고 있는 청년회의 결속을 다지는 지역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종회 27일 개최

조계종 제116회 중앙종회가 오는 27일부터 5일간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1994년 결산 검사의 건과 지난 115회 종회에서 이월된 △봉일특위 구성의 건 △불교방송 진흥원 불교 TV의 건 등 기타 안건이다.

실업인회 김정태회장 유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제5차 정기총회및 창립4주년 기념법회를 지난 14일 오후5시 해운대 미리나 센타에서 갖고 제3대 회장에 김정태회장을 회원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東大 신규교수 41명채용

동국대 (총장 송석구)는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로 총22개학과에 서울캠퍼스 19명, 경주캠퍼스 22명등 총 41명을 채용했다.

부산 종교인평화회의 창립

종교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종교인 평화회의'가 창립됐다.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코모도호텔 오륙도홀에서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화해와 평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평화회의는 상호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종교인으로서의 공동과제를 함께 연구 실천하며 상설교육기관으로 '평화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환경, 인권, 지역 발전등 분야별로 교육과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성보관리과정 개설키로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각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성보관리를 위해 4월께 문화재관리 불교대학을 개설해 교구본사 및 주요말사 문화재 담당 소임자를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문사부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호법부스님이 폭행

탁발행위 근절에 나선 조계종 호법부 소속 스님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탁발하던 관음종 소속 보리스님을 폭행,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혔다.

호법부 소속 스님 3명은 지난 15일 오후3시경 종로3가 탑골공원 앞에서 불전함을 놓고 원각사지 복원 및 원각사탑 훼손 방지를 호소하던 보리스님을 탑골공원 관리사무소에서 20여분간 구타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조기현씨 회장자격 상실

상무대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전국신도회 회장 조기현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회장자격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형사상 형이 확정되면 회장자격을 상실한다'는 전신회 정관에 따라 조회장의 자격이 상실됐다.

7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불기 2539년 5월 7일 (음) 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조 계 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6m · 35,000원 / 90cm×8m · 45,000원

봉축 어깨띠
(3색칼라, 고급공단으로 제작)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이름 넣어드립니다.
(1매에 2,500원)
※ 색상 : 노랑색, 핑크색, 흰색

봉축 꽃 리본
※ 꽃 리본 100매 가격
수동식 리본은 20,000원
기계식 리본은 30,000원 입니다.
(기본 100매)
※ 색상 : 꽃분홍, 분홍, 빨강, 녹색, 청석, 노랑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부처님 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윤거사의 등공양

연등공양 이야기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인사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000원
크기 / 신국판 × 66페이지
◎ 접수마감 / 5월 1일까지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 라 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주택은행 679802-93-112523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시심마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언제쯤 얽매인 굴레에서 벗어날까

시심마(是甚麽). 이 무엇인가! 예술가의 창작활동이란 바로 '이 무엇'을 찾아 예술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형이상(形而上)의 추상내용을 형이하(形而下)의 예술작품으로 번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작활동의 목적은 바로 자기실현에 있으며 그 바탕은 '창작성' '새로움'에 있다.

물론 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이나 과학기술등에서도 창작성(이 무엇)의 특성은 '새로움', '신기성'에 있으며, 선(禪)의 '목적' 역시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얻는데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현상을 찾아내려 하고 예술가는 창작활동을 통해 '그 무엇'을 드러내려 하며, 선가(禪家)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여 깨달음을 얻고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본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새로운 것, 창작성을 위하여 선승(禪僧)은 고행과 명상을 하며 예술가는 사색과 탐구에 정진하는 것이 아닐까?

수행이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듯이 창작활동 역시 '그 무엇'을 찾아 예술형상으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깨달음' '그 무엇' '새로움'에 대한 집기는 속박을 벗음으로써 이루어진다했는데, 나는 언제쯤이나 이 얽매인 굴레를 벗고 '그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굴레를 쓰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나는 나의 그림에 명상에 잠긴 수행승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무엇'이 아니며, '그 무엇'을 찾고 있는 형상을 표현해 봄으로써 그와 가까워지고자 함 따름이다. 즉 형상을 빌어 진실을 찾아 보고자 함이다. 그들은 '연상의 차나무' '동 막대기'를 보고도 깨달음을 얻었다 던데, 내가 찾는 '그 무엇'은 이리도 어려운 것일까? 찾는다는, 그리다는 속박 까지도 떨어버려야 하는데, 버린다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니니 오늘도 이 굴레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김 대 열 〈화가, 덕원미술관장〉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①

주부신행담

남편은 항상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라며 '무일물생활'을 주장했다
세월은 흘러 우리가족의 일과는 새벽예불로 시작됐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결혼 후부터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자 우리나라의 남자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을 학도병으로, 여자전문학교 학생들은 정신대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루머로 분책가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 막았다.

막막하고도 두려운 현실에 부딪혔지만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다.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적당히 조건이 맞는 청년들은 대개가 학도병으로 끌려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경상시 중요하다고 여겨온 성격이나 종교관등을 맞추어 결혼한다는 것은 꿈도 클 수 없었던 처지였다.

그러던 차에 훌륭한 가문과 동경 유학생이라는 조건의 샌먼부지 청년과 서둘러 결혼을 했다. 내 남편이 된 그 사람은 21세때부터 동경에서 선계(禪界)의 대가이신 화전(花田)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구도생활에 몰두해 있었다.

귀국후 교사가 된 그는 결혼후에도 신심을 흐뜨려 뜨리지 않고 구도자적인 생활을 계속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가 신혼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혼해서 처음 자리잡은 곳은 양주군 별내면 깊은 산골 과수원집 아래채의 초라한 단칸방이었다. 그곳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의 첫출발점 치고는 너무도 삭막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부엌은 멍석으로 바람막이를 한 채 까만 솥하나 걸려있고 찬장은 사과궤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땔감이라곤 밤송이를 말린 것 뿐이었다. 가사일에 전혀 손대보지 않은 나로서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하고 진지한 구도자였던 내 남편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에 이끌려 신혼의 단꿈은 접어둔채 불편, 불만, 추회등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된 생활에 적응해가야 했다.

이것까지도 좋았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무일물생활(無一物生活)'을 주장하는 남편의 고집이었다.

남편은 항상 "현실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물질세계를 단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정신세계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집이었다. 아니 불가능한 생활을 강요한다고까지 생각됐다. 그러나 이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남편의 어떤 힘에 이끌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나는 5남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생활이 어느새 남편의 힘에 이끌려 살아온 그 세월동안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는 사실이었다.

가정불교 신행에 제법 틀이 잡힌 우리 가족의 일과는 새벽 예불부터 시작됐다. 개경게로 시작해서 반야심경 관음경 법화경의 여래수량품게송 사홍서원으로 끝을 맺는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됐다. 황금같은 새벽을 이처럼 보람있게 열면서 하루가 시작되며 자녀때에는 아이들과 한 방에서 경을 비롯한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지도했다.

남편도 귀가하면 조용히 정좌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다. 일요일에는 언제나 가족법회를 가졌다. 남편은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마음껏 꺼내쓰자"며 사람의 능력이나 재간의 근원은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그 '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불씨'에 거름을 주며 알차게 영글어 가도록 지켜보았다. 이런 정성이 있어서인지 아들 삼형제는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같이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때 남편은 나에게 자식들에게 너무 '착'을 듣다고 충고했다. 나는 이에 자극을 받아 절에 나가기 시작했다. 학승인 주지스님 밑에서 초발심자경문을 시작으로 천수경,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원각경, 은중경, 등을 읽고 외우고 또는 사경을 하였으며 육조단경은 강원으로 특강을 받으러 갔다. 그 외에도 고명한 스님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감탄하며 불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다.

나는 이것이 지혜를 밝히는 가장 옳고 빠른 길이라고 믿었다.

박문수행 〈천안 축성산 천의 생활사〉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⑪

A pupil should minister to his teachers as the southern quarter in five ways, by rising from his seat to salute them, by waiting upon them, by his eagerness to learn, by personal service, and by respectfully accept their teaching.

제자는 스승에게 다섯가지 방법으로 봉사해야 한다. 인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남으로써, 스승의 시중을 듦으로써, 열심으로 배우고자 함으로써 개인적 봉사를 함으로써, 경의를 다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Teachers thus ministered to as the southern quarter by their pupil, show their love for their pupil in five ways. They train him well. They make him grasp what he has learnt. They instruct him thoroughly in the lore of every art. They introduce him to their friends and companions. They provide for his security everywhere.

이렇게 제자로부터 남방으로 받들어진 스승은 제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다섯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제자를 잘 교육한다. 그들은 제자가 배운 바를 잘 알아둔다. 그들은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철저하게 제자를 지도한다. 그들은 제자를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소개해 준다. 그들은 어디서나 제자의 안전을 제공한다.

A wife as western quarter should be ministered to by her husband in five ways, by respecting her, by his courtesy, by being faithful to her, by handing over authority to her, by providing her with adornment.

남편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아내에게 서쪽방향으로 봉사해야 한다. 아내를 존중함으로써, 예의를 지킴으로써, 아내에게 충실함으로써, 아내에게 권위를 줌으로써, 아내에게 장신구를 줌으로써.

*salute 인사하다.
*courtesy 공손, 정중, 예의.
*lore (전승적인)지식, 학문.

〈박미영 기자〉